

## 제1편 온양관련 왕조실록 자료



### 태종실록

다음은 역대왕들의 온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 기록으로 왕조실록에 수록된 자료들이다.

**【태종 11년 9월 12일(경오) / 상왕이 온천에 가려다 정부의 반대를 알고 금주 안양사로 목욕하러 가다】**

상왕이 금주 안양사에 거둥하였으니, 탕목하고자 함이었다. 처음에는 충청도 온수에 가고자 하였으나 정부에서 정지하기를 청하는 뜻을 알고 드디어 금조로 나갔다. 세자가 강가에서 전송하고 인하여 동교에 나갔다.

**【원전】** 1집 602면

**【분류】** \*왕실-행행

### 세종실록

**【세종 14년 9월 4일(기미) / 승정원에 온수에 가려하니 폐단이 백성에 미치지 않을 계책을 의논하라 전지하다】**

승정원 전지하기를,

◆◆◆◆◆내가 근년 이후로 풍질(風疾)이 몸에 배어 있고, 중궁(中宮)도 또한 풍증(風症)을 앓게 되어,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여도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일찍이 온정(溫井)에 목욕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백성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되어 잠잠히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은 지가 몇 해가 되었다. 이제는 병의 증상이 계속 발생하므로 내년 봄에 충청도의 온수(溫水)에 가고자 하니,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계책을 의논하여 아뢰라, 또 그 접대하는 도구와 공선의 일은 모두 금년 겨울 사무가 한가로울 때에 미리 준비하게 하고, 비록 실우(室宇)를 짓더라도 사치하고 크게 짓지 못하게 하며, 그 체제(體制)를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하라.◆◆◆◆◆하였다. 대언(代言) 등이 삼전(三殿)의 욕실(浴室)과 침실(寢室)의 체제(體制)를 그림을 그려서 올리니, 임금이 이를 보고 그 수효를 감하게 하고 판사(判事) 배환(裴桓)으로 하여금 그림을 가지고 온정(溫井)으로 가서 본도(本道) 감사(監司)와 다시 편의한 점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전】 3집 415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세종 14년 12월 9일(갑오) / 승정원에 9월에 대열하고자 하니 정부의 대신과 의논하여 아뢴 것을 전지하다】

승정원 전지하기를,

◆◆◆◆◆대열(大閱)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요, 국가의 대사이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신이 올 때마다 군액(軍額)이 적음으로 인하여, 열병(閱兵)을 하지 못하고 여러 해를 지내왔으나, 그러나 사신이 오는 것은 어느 해에도 없지 아니하매 익히지 않을 수 없다. 명년에는 번상시위(番上侍衛)와 온수(溫水)에 거동할 때의 시위패(侍衛牌)를 정지하고, 9월을 기다려 여러 도에서 징병하여 대열(大閱)을 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그것을 정부의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

◆◆◆◆◆

하니, 황희(黃喜)는 아뢰기를,

◆◆◆◆◆하필 여러 도의 군사를 다 징발하오리까. 해마다 번상(番上)하는 군사로서 열병(閱兵)을 하면 여러 도의 군사가 서로 교대하면서 이습(肄習)하지 아니할 자 없을 것이오니, 그리하오면, 비록 중국의 사신이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번상군(番上軍) 뿐이라.◆◆◆◆◆할 것이요, 사경(四境)에서 다 징병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 등이 아뢰기를,

◆◆◆◆◆맹년에는 다 징발하여 대열하시고, 그 뒤로는 번상 군사(番上軍士)로서 해마다 강

습(講習)하옵는 것이 편하고 이익될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앞으로 병조와 삼군 도진무(三軍 都鎮撫)에게 의논하리라.◆◆◆◆◆하였다.

【원전】 3집 429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세종 15년 3월 25일(무인) / 온수현 온천에 행차할 때 왕세자 이하 종친·부마 등이 호종하다】**

온수현(溫水縣) 온천에 행차할새 왕세자 이하 종친·부마(駙馬) 및 의정부·육조·대간(臺諫) 등에서 각 한사람과 도진무(都鎮撫)·각위(各衛) 절제사·사복제조(司僕提調)등이 호종(扈從)하고, 유도(留都)하는 배관들이 홍인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중궁(中宮)이 떠날제 내명부(內命婦)에서 척리(戚里)까지 모두 시위(侍衛)하여 홍인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중궁은 연(輦)을 타고, 숙의(淑儀)는 교차(轎子)를 타고, 소용(昭容)·숙용(淑容) 두 부인과 궁인(宮人) 이하는 모두 말을 탔다. 낙생역(樂生驛) 전평(前平)에 차소(次所)를 정하니, 경기 감사 남지(南智)·경력 황수신(黃守身)·광주 목사 어중연(魚仲淵) 등이 맞이해 뵈옵고, 인하여 대전(大殿)에게는 농포 병풍(農圃屏風) 1좌를 중궁에게는 잠도병풍(蠶圖屏風) 1좌를, 동궁에게는 효자도 병풍(孝子圖屏風) 1좌와 각색 음식물을 올리고, 경상도 감사도 방물(方物)을 올렸다.

【원전】 3집 46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지학(地學) / \*재정-진상(進上)

**【세종 15년 3월 29일(임오) / 온수현에 사는 백성들에게 매호에 콩 한 섬과 벼 두 섬을 하사하다】**

온수현에 사는 백성들에게 매호에 콩 한 섬과 벼 두 섬을 하사하였다. 대저 대가(大駕)가 오래 머물면 백성들이 그 폐를 받을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원전】 3집 46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세종 15년 4월 5일(무자) / 임금이 온수현의 병든 노인과 환과 고독에게 은혜를 베풀 것**

## 을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온수현 인민들에게 벼와 콩을 이미 하사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조세(租稅)를 감해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러나 다시 고칠 수 없으니, 병든 노인과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라도 은혜를 더 베풀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감사에게 이름을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집 46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구휼(救恤)

### 【세종 15년 4월 7일(경인) / 온수현의 빈궁한 사람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온수현의 빈궁한 사람 76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 나이 80이상인 곤궁한 백성 9명에게 벼 2석과 콩 1석씩, 나이 70이상인 곤궁한 백성 18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을 하사하고, 또 감사에게 명하여 토지가 행궁(行宮) 근처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자에게는 그 결복(結卜)의 수(數)로 값을 주게 하였다.

【원전】 3집 46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세종 22년 3월 2일(갑진) / 중궁이 충청도 온수현의 온천에 거둥하다】

중궁(中宮)이 충청도 온수현(溫水縣)의 온천(溫泉)에 거둥하였는데, 진양대군(晉陽大君) 이유(李贊)·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동부승지(同副承旨) 민신(閔伸)·병조 참판 신인손과, 정·좌랑(正·佐郎) 각 한사람과, 갑사(甲士) 1백 인이 호종하였다.

【원전】 4집 272면

【분류】 \*왕실-종친(宗親)/\*왕실-비빈(妃嬪)/\*왕실-행행(行幸)/\*과학-지학(地學)

**【세종 23년 1월 19일(정사) / 김구·정효강을 온수·평산에 보내 안질치료를 시험케 하다】**

성균사성(成均司成) 김구(金鉤)·형조정랑(刑曹正郎)·정효강(鄭孝康)·대호군(大護軍) 양홍수(楊弘遂)를 온수(溫水)로, 성균박사(成均博士) 정자영(鄭自英)을 평산(平山)으로 보내어 목욕하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여 보게 하였다.

【원전】 4집 333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보건(保健)

**【세종 23년 3월 1일(무술) / 온수현 거동시 10리 밖에 군사를 배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온수현(溫水顯)으로 거동하옵는데, 본현(本顯)은 바다와 거리가 멀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수백 기를 10리 밖에다 배치하여 뜻하지 아니한 환난에 대비하게 하소서.”

【원전】 4집 33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지학(地學)

**【세종 23년 3월 17일(갑인) / 왕과 왕비가 온수현에 행행하다】**

왕과 왕비(王妃)가 온수현(溫水顯)으로 행행하니, 왕세자(往世子)가 호종(扈從)하고, 종친(宗親)과 문무군신(文武群臣) 50여 인이 호가(扈駕)하였다. 임영 대군 이구·한남군 이어로서 수궁(守宮)하게 하고, 이 뒤로부터는 종친들에게 차례로 왕래하게 하였다. 임금이 가마골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 행차에 처음 초여를 쓰고 기리고(記里鼓)를 사용하니, 거가(車駕)가 1리(里)를 가게 되면 목인(木人)이 스스로 북을 쳤다.

【원전】 4집 33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교통-육운(陸運)

**【세종 23년 4월 17일(계미) / 온수현을 승격하여 온양군으로 삼다】**

임금의 병(病)이 나왔으므로 특별히 온수현(溫水顯)을 승격하여 온양군(溫陽郡)으로 삼고, 인하여 노비를 관호에 따라 채워 주도록 하였다. 또 관찰사 이맹상(李孟常)·도사 송취(松翠)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 주었다.

【원전】 4집 339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세종 24년 5월 3일(임술) / 눈병이 심하여 세자로서 서무를 처결하게 하려는 뜻을 조서강에게 이르다】**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河演)·좌참찬 황보인·에조판서 김종서·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눈병이 날로 심하여 친히 기무(機務)를 결단할 수 없으므로, 세자(世子)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처결하게 하고자 한다.◆◆◆◆◆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비록 눈병을 앓으시지만 연세(年歲)가 한창이신데 갑자기 세자에게 서무를 대신 처결하게 하신다면, 다만 온 나라 신민(臣民)들만 실망(失望)할 뿐 아니라, 후세(後世)에서 모범하는데 있어 어떻다 하겠습니까. 또 중국 조정(朝廷)이나 남북의 이웃나라가 이를 듣는다면, 또한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臣)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드디어 조서강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문왕(文王)이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함으로써 삼년의 수명을 감손(減損) 시켰다.◆◆◆◆◆하지만, 그러나 어찌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함으로써 수명이 감손될 이치가 있겠는가. 후세(後世)의 아첨하는 사람이 이를 빙자하여 임금에게 고하기를,◆◆◆◆◆너무 지나치게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하여 타고난 수명을 감손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본받을 만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군주가 정사에 태만하면 반드시 능히 타고난 수명을 보전해 마치지 못할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눈병을 앓은 지는 지금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며, 근래 5년 동안은 더욱 심하니, 그 처음 병이 났을 때에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게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잘 휴양(休養)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지금에 와서 이를 후회한다. 몇 해 전에 온양(溫陽)에서 목욕을 한 후에는 병의 증후(證候)가 조금 나왔으므로, 내 생각에는 이로부터는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10월 이후로는 또 다시 그전과 같으니,

비록 종묘(宗廟)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자 하여도 벌써 희망이 없게 되었다. 문소전(文昭殿)은 내가 실행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으니, 오르고 내리기가 비록 어렵겠지만, 혹은 친히 제사를 지낼 때도 있을 것이나, 지금부터 이후에는 종묘(宗廟)의 제사와 무예(武藝)를 연습하는 일은 진실로 친히 실행하기가 어렵겠는데, 대신(大臣)들이 어찌 내 병이 이러한 극도에 이르른 줄을 알겠는가. 그 정사를 보는 것을 줄이고 시력(視力)을 휴양(休養)하기를 2, 3년만 연장(延長)시킨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태종(太宗)이 종묘(宗廟)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마침 눈이 내리므로 세자로 하여금 대신 지내게 한 구례(舊例)가 이미 있었으며, 또 한 집안에서 가장(家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맏아들로 대신 행하게 하는데, 하물며 세자는 임금의 후사(後嗣)이며 임금의 다음이니, 종묘의 제사와 무예(武藝)를 연습하는 일 등을 세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 해도, 진실로 방해됨이 없을 것이다. 또 사대부(士大夫)를 접견(接見)하여 정치의 방법을 습득해 알게 한다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대가 이 뜻으로써 대신에게 자세히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다 이를 알게하라.◆◆◆◆◆하였다.

【원전】 4집 40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세종 24년 11월 24일(경진) / 임금이 병으로 온양에서 목욕하고자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병이 있는 이후로 계축년(癸丑年)에 온양(溫陽)에서 목욕하고, 또 신유년(辛酉年) 봄에 온양(溫陽)에서 목욕하고, 금년에 또 이천(伊川)의 온정에서 목욕하니, 내 병이 거의 조금 나아졌으나 그래도 영구히 낫지는 않았다. 이것은 나의 종신(終身)토록 지낼 병이므로 목욕으로 능히 치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욕한 후에는 나은 듯하므로 또 온양(溫陽)에 목욕하고자 하니, 그 시위(侍衛) 군사는 간편한 데 따르도록 하고, 그대들이 마감(磨勘)하여 아뢰라.◆◆◆◆◆하였다.

【원전】 4집 444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세종 24년 11월 27일(계미) / 명년에 온양에서 목욕할 때, 접대로 인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다.】**

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명년에 온양(溫陽)에서 목욕하고자 하니, 무릇 접대하는 잡물(雜物)은 본도(本道) 각 고을의 상공물(常貢物)로써 수량을 헤아려 지대(支待)하고 민간에게 소요를 일으켜 폐단이 있게 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4집 448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상공(上供) / 과학-지학(地學)

### 【세종 25년 3월 1일(병진) /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동하다】

임금이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동하매,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君)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 사람씩을 호가(扈駕)하게 하고,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와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玼)으로써 궁을 지키게 한 후, 대군과 여러 군을 윤번으로 왕래하게 하였다. 이날에 용인현(龍仁縣) 도천(刀川)의 냇가에 머무르는데, 악공(樂工) 15인이 저녁때부터 이고(二鼓)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다. 이번 거동에 길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서 영알(迎謁)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원전】 4집 46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지학(地學)

### 【세종 25년 3월 19일(갑술) / 온양군 사람들에게 치하하다】

명하여 온양군(溫陽郡) 사람에게 환자를 매호에 2섬씩 감하여 바치게 하고, 그 고을의 노인 25인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온정감고(溫井監考) 6인에게도 면포(綿布)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원전】 4집 46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구휼(救恤)

### 【세종 31년 12월 3일(기유) / 임금이 배천 온천에 요양가려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하연·황보인·박종우·정분·정갑손에게 이르기를,

◆◆◆◆◆나의 안질(眼疾)은 이미 나왔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던 것도 조금 가벼워졌으며, 오른쪽 다리의 병도 차도가 있음은 경 등이 아는 바이지만, 근자에는 왼쪽 다리마저 아파져서, 기



**【단종 2년 3월 11일(임술) / 전가생이 영응대군·익현군·양녕 대군은 온천에 갈 필요가 없음을 아뢰다】**

장령(掌令) 전가생(田稼生)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아뢰기를,

◆◆◆◆◆신 등이 지금 전지(傳脂)를 보니,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濟)가 고성(高城) 온천(溫泉)에 가고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익현군(翼峴君) 이관·영해군(寧海君) 이장(李璋)이 온양(溫陽) 온천에 간다고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건대, 전일에 신빈(愼嬪)이 온양온천에 갔을 때 계양군(桂陽君)·의창군(義昌君)·밀성군(密城君)이 따라 갔었으니, 지금 영응대군·익현군·영해군은 또다시 가야할 필요가 없고 또, 양녕대군은 큰 질병도 없으니 온천에 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물며,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 두 도는 해마다 계속 농사에 실패하여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중지하소서◆◆◆◆◆

하니, 윤휴하지 않았다. 전가생이 재삼(再三) 청하였으나 모두 윤휴하지 않았다. 우헌납(右獻納) 조효문(曹孝門)이 또한 본원의 의논을 아뢰기를,

◆◆◆◆◆전일에 전순의(全循義)의 고신(告身)을 환수(還收) 할 것을 여러번 청하였는데, 지금 또 군직(軍職)을 주시니 신 등은 분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계기(李啓基)는 교하현(交河縣)에 나가서 다스린지가 겨우 두어 해가 되는데, 무엇으로 그 정적(政迹)의 탁이(卓異) 함을 보고 3등(等)씩이나 뛰어 가자(加資)하셨습니까? 세종조(世宗朝) 때에는 수령(守令)이 십고 십상(十考 十上)인 자라야 한 자급(資級)을 뛰어 제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이계기가 만약 6기(六期)를 채우면 또 장차 무엇으로 처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휴하지 않았다.

【원전】 6집 676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보건(保健) / \*농업-농작(農作) / \* 인사-관리(管理)

**【단종 2년 3월 12일(계해)/ 권준 등이 양녕대군·영응대군 등이 온천에 가는 것을 중지하기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권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어제 양녕대군(讓寧大君)이 강원도 고성(高城) 온천(溫泉)에 가는 것과 영응대군(永應大君) 이염(李琰)·익현군(翼峴君) 이관·영해군(寧海君) 이장(李璋)이 충청도 온양(溫陽) 온천에 가는 것을 중지 시키기를 청한 일로써 감히 성상의 위엄을 모독 하였사오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는데, 물러와서 생각하니,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재차 천위(天威)를 모독하는 바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번의 행차와 전번의 신빈(愼嬪)의 행차를 어우를 것 같으면 그 집역과 공급하는 사람이 수백이 못되지 않을 것이며, 말도 1백여필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道路)에 지숙(止宿)하고 온정(溫井)에서 유련(留連) 하는데 있어서 공역 지대(供億 支待)를 받드시 한 도(道)의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운번(輪番)으로 관비(辦備)해야 할 것이고, 모든 공역의 비용을 모두 가가호호(家家戶戶)에서 거두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관리들이 이것을 연유하여 온갖 방법으로 백성들을 침어(侵魚)할 것이고, 양식을 운반하는 폐단으로 온 도(道)가 소란하여, 그 해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풍년이 든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진념(軫念)하여야 될 터인데, 지난 가을에는 모든 도(道)가 다 풍년이 들이 못하고 충청도와 강원도 두 도는 더욱 심하여, 밭에 심은 것은 열에 하나를 거두지 못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국가(國家)에 연고까지 많아 민심(民心)이 편안치 못하였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인성(仁聖)하시어 백성을 불쌍히 생각하고 민망하게 여기시어, 포흠과 부채를 견면하고 영선을 정과하신데 힘입어, 백성들이 기뻐하고 사모하며 감격하고 좋아하여 갱생(更生)의 은혜를 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봄철을 당하여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전야의 백성들이 명아주의 잎과 공잎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군신 상하(君臣 上下)가 더욱 삼가고 두려워하며 급급황황(汲汲遑遑)하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근심하여 진휼(賑恤)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하겠는데, 어찌 전과 다름없이 구차하게 이같이 불급(不急)한 행차를 하여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시끄럽게 하며, 국가의 원기(元氣)를 빼앗아 없애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인애(仁愛)가 지극하시어 종척(宗戚)을 우례(優禮)로 대하여 차마 그 뜻을 어기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대군과 제군의 이번 행차가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소요해져서,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한 뜻이 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국가가 근년 이래로 공사(公私)가 모두 탕갈(蕩竭)되었으니, 만일 다시 이것으로 인하여 업을 잃게 되면 노유가 장차 구학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오니, 주상께서는 장차 무엇으로 이를 구제하겠습니까? 엎드려 빌건대, 이 행차를 정지하도록 명하시어 민생을 구제하시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또한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원전】 6집 677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과학-지학(地學) / \*정론-정론(政論)

【단종 2년 3월 25일(병자) / 영웅대군과 익현군·영해군이 은양 은천에 가니 환관을 보내어 전송하게 하다】

영응대군((永應大君) 이염(李琰)과 익현군(翼峴君) 이관·영해군(寧海君) 이장(李璋)이 온양(溫陽) 온천에 가니, 환관(宦官)을 보내어 한강(漢江)에서 전송하게 하고, 풍악을 하사하였다.

【원전】 6집 678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과학-지학(地學)

【단종 2년 4월 8일(기축) / 영응대군 이염이 온양에서 돌아오니 선운을 내려주다】

영응대군(永應大君) 이염(李琰)이 온양(溫陽)에서 돌아오니,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선운을 가지고 가서 한강(漢江)에서 맞이하게 하였는데, 풍악(風樂)을 내려주었다. 세조(世祖)가 여러 종친 및 병조 참판(兵曹 參判) 홍달손(洪達孫)·좌랑(佐郎) 이극배(李克培)와 더불어 사복시(司僕侍) 관원과 좌우 응방(左右 鷹坊)을 거느리고 청계산(淸溪山)에 사냥하러 갔다가 이를 맞이하였다.

【원전】 6집 68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 농업-임업(林業)

【단종 2년 4월 13일(갑오) / 신빈이 온양에서 돌아오다】

신빈(愼嬪)이 온양(溫陽)으로부터 돌아오니, 세조(世祖)가 종친과 더불어 화양정(華陽亭)에서 맞이하였다.

【원전】 6집 68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세 조 실 록

【세조 4년 7월 18일(계묘) /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에게 목욕가는 정순 공주에게 음식 등을 지급하라고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충청도 관찰사(忠淸道 觀察使) 황효원(黃孝源)에게 치

서하기를,

◆◆◆◆◆ 정순공주(貞順公主)가 지금 온양온정(溫陽溫井)에 목욕하러 가니, 그녀에게 감영(監營)의 쌀 10석(石)과 황두(黃豆) 5석을 주고, 아울러 음식물(飮食物)도 주라.◆◆◆◆◆

하였다. 공주(公主)는 태종(太宗)의 딸로서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시집갔었다.

【원전】 7집 285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보건(保健) / \*재정-국용 / \*과학-지학

**【세조 4년 8월 24일(기묘) / 충청도 관찰사에게 온양 온정에 목욕하러 가는 의창군 이공을 잘 대접하게 하다】**

의창군(義昌君) 이공이 병(病) 때문에 온양온정(溫陽溫井)에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忠淸道 觀察使)에게 유시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였다.

【원전】 7집 29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과학-지학(地學) / \*보건(保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조 9년 12월 5일(기축) / 하성위 정현조 등에게 명하여 온양 온정의 행궁에 가서 살피게 하다】**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행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에게 명하여 충청도(忠淸道) 온양온정(溫陽溫井)의 행궁(行宮)에 가서 살피보게 하였으니, 장차 내년 봄에 거동하러 하였고 기 때문이었다.

【원전】 7집 59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4년 8월 24일(기묘) / 충청도 관찰사에게 온양 온정에 목욕하러 가는 의창군 이공을 잘 대접하게 하다】**

의창군(義昌君) 이공이 병(病) 때문에 온양온정(溫陽溫井)에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忠淸道 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였다.

【원전】 7집 290면

【분류】 \*왕실-종친 / \*과학-지학 / \*보건(保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조 10년 2월 17일(경자) / 임금이 온양으로 행행하고자 하여 정창손·박원형 등을 수상과 주장으로 삼다】

임금이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하고자 하여,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정수충(鄭守忠)·이조판서(吏曹判書) 김담(金談)·공조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원성군(原城君) 원효연(元孝然)·행 상호군(行 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인순부 윤(仁順府 尹) 한계희(韓繼禧)·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인수부 윤(仁壽府 尹) 강희안(姜希顔)·형조 참판(刑曹 參判) 이서(李墅)·공조 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을 수상(守相)으로 삼고, 청성위(靑城慰) 심안의(沈安義)·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희(沈澮)·중추원사(中樞院使) 윤사흔(尹士昕)·중추원부사(中樞院副事) 김개(金漑)·서원권(西原君) 한계미(韓繼美)·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을 수장(守將)으로 삼았다.

【원전】 7집 610면

【분류】 \*왕실-행행 / \*군사-중앙군

【세조 10년 2월 18일(신축) / 중궁과 더불어 온양에 행행하였는데, 광주 문현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하였는데 어가(御駕)가 광주(廣州) 문현산(門縣山)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포획(捕獲)한 짐승을 어가를 호종한 종친과 재신(宰臣)에게 하사(下賜)하였다.

【원전】 7집 610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세조 10년 3월 1일(갑인) / 어가가 온양의 행궁에 이르다】

저녁에 거가(車駕)가 온양(溫陽)의 행궁(行宮)에 이르렀다.

【원전】 7집 61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10년 12월 5일(갑신) / 내년 봄에 온양에 거동할 때 경상도 군사가 시위할 것을 명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년 봄에 온양(溫陽)에 거동할 것이니, 경상도(慶尙道)의 군사(軍士)들로 하여금 시위(侍衛)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7집 661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10년 12월 16일(을미) / 충청도가 실농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은천으로 가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듣건대, 충청도(忠淸道)가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는데, 오는 봄에 온양(溫陽)에 행차(行次)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江原道) 고성(高城)이나 황해도(黃海道) 배천(白川)·해주(海州)등의 온정(溫井)에 거동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이 좋겠는가?◆◆◆◆◆

하니, 승정원(承政院)과 병조 판서(兵曹 判書) 윤자운(尹子雲)이 대답하기를,

◆◆◆◆◆온양(溫陽)의 옥사(屋舍)는 완전히 갖추어져 지금 다만 이를 수리(修理)할 뿐입니다. 만약 고성(高城)·배천(白川)·해주(海州)이면 옥사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창건(創建)하지 못할까 걱정되니, 온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나 행행(行幸)하는 모든 일이 지극히 간략하지, 어찌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전지(傳旨)하기를,

◆◆◆◆◆이른바 세 온정(溫井)은 내가 또한 후일에 마땅히 가겠으니, 아울러 옥사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동래가 비록 멀지만 오히려 갈 만 하니, 또한 아울러 수리하라.◆◆◆◆◆

하니, 윤자운이 아뢰기를,

◆◆◆◆◆동래(東萊)는 신(臣)이 친히 보았는데, 관사(館舍)가 완전하고 좋으니, 비록 고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하였다.

【원전】 7집 64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농작(農作) / \*과학-지학(地學)

【세조 11년 1월 4일(임자) / 온양에 행행하여 머무르다】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하여 머물렀다.

【원전】 7집 66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11년 8월 17일(임진) / 중궁과 함께 온양에 거동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온양(溫陽)에 거동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영응대군(永應大君) 이엽(李瑛)·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俊)·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신종윤(新宗尹) 이효백(李孝伯)·물거윤(物巨尹) 이철(李徹)·계천부정(堤川副正) 이온·부윤부령(副潤副令) 이효숙(李孝叔)·곡성부령(鵠城副令) 이금손(李金孫)·운수부령(雲水副令) 이효성(李孝誠)·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부원군(上堂府院君)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중추원사(中樞院使) 강순(康純)·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정식(鄭軾), 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행 상호군(行 上護軍) 구문신(具文信)·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병조참판(兵曹參判) 임원준(任元濬)·행 상호군(行 上護軍) 조득림(趙得琳)이 수가(隨駕)하였다. 백관(百官)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지송(祗送)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최환경(崔漢卿)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경계(境界) 위에서 맞이하였다. 청계산(淸溪山)에서 물이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 머물렀다.

【원전】 7집 69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11년 8월 20일(을미) / 대가가 온양 탕정의 행궁에 이르다】

대가(大駕)가 움직이었다. 상군(廂軍)에게 명하여 길가에서 물이하게 하여 여우를 잡고, 드디어

온양탕정(溫陽湯井)의 행궁(行宮)에 이르렀다.

【원전】 7집 69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조 13년 8월 26일(기미) / 한명회가 온양 온천에 가니 세자에게 전별하게 하다】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가 온양온정(溫陽溫井)에 가서 목욕하니,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제천정(濟天亭)에서 전별(錢別)하게 하였다.

【원전】 8집 11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세조 14년 1월 19일(경진) / 27일에 온양에 거동할 것을 병조에 알리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本月(本月) 27일은 온양(溫陽)에 거동하여 50일을 머무르고, 겸하여 강무(講武)를 행하겠으니, 그 모든 일을 관비(辦備)하라.◆◆◆◆◆하였다.

【원전】 8집 15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 별 지 자 료 -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세조 045 14/01/20(신사) / 환관 신운 등을 온양 행궁에 보내 온정을 수선하게 하다》

환관(宦官) 신운(申雲)과 선공감 창봉(繕工監參奉) 이식(李植)을 온양 행궁(溫陽行宮)에 보내어

온정(溫井)을 수선(修繕)하게 하였다.

【원전】 8집 157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세조 045 14/01/27(무자) / 중궁과 더불어 세자를 거느리고 온양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세자(世子)를 거느리고 온양(溫陽)으로 거둥하였다.

보성군(寶城君) 이합(李議)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우공(禹貢)·배맹달(裴孟達)·유균(柳均)·김효조(金孝祖)를 위장으로 삼았으며, 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를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오자경(吳子慶)·황사장(黃事長)·이의견(李義堅)·이소(李昭)를 위장으로 삼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를 전상 대장(前廂大將)으로 삼고, 권경(權擎)·제천군(堤川君) 이온(李誕)·유흥무(柳興茂)·이중미(李仲美)를 위장으로 삼았으며,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를 후상 대장(後廂大將)으로 삼고,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한치의(韓致義)·경유공(慶由恭)·이근효(李近孝)를 위장으로 삼았다. 부윤 부수(富潤副守) 이효숙(李孝叔)을 사자 위장으로 삼고, 임자번(林子蕃)을 공현 위장으로, 이숙기(李叔琦)를 좌사 대장(左射大將)으로, 강곤(康袞)을 우사 대장(右射隊將)으로, 이훈(李埴)을 좌용 대장(左勇隊將)으로,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안빈(安貧)을 치중장(輜重將)으로, 맹석흠(孟碩欽)을 잡류장(雜類將)으로, 평성 도정(坪城道正) 이위(李偉)를 내금위장으로, 이맹손(李孟孫)을 착호장(捉虎將)으로, 유자광(柳子光)을 총통장(銃筒將)으로, 양진손(梁震孫)을 팽대장(彭隊長)으로, 김이정(金利貞)을 창대장(槍隊將)으로,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지응사(支應使)로 삼았는데, 내종(內宗)·사종(射宗)·임종(任宗)과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호조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이조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흠(尹欽)·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문원군(文原君) 유사(柳泗), 행 대호군(行大護軍) 안철손(安哲孫)·이주(李珠)·황생(黃生)·윤말손(尹末孫)·이철건(李鐵堅), 행 첨지사(行僉知事) 허유례(許惟禮)·이운로(李雲露), 행 호군(行護軍) 정승로(鄭崇魯)·조신손(趙信孫),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번(李蕃)·신말주(申末舟)·구치홍(具致洪)·권각(權恪)이 호종(扈從)하였다.

거가(車駕)가 살곳이[箭串]에 이르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절도사(節度使)

정문형(鄭文炯)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어가(御駕)를 맞이하고, 유도 백관(留都百官)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지송(紙送)하였다. 명하여 군사(軍士)와 호종관(扈從官)에게 운(運)을 나누어 강(江)을 건너게 하고, 거가(車駕)가 문현산(門懸山)에 이르러서는 사냥[打圍]을 하여 사슴과 노루를 잡았는데, 한 마리 놓인 사슴이 둘레 밖[圍外]에 뛰어 나오다 갑사(甲士) 조구(趙球)를 받아 가슴과 눈 곁을 상(傷)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이 듣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를 보내어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성균 직강(成均直講) 유원로(兪元老)에게 약(藥)을 가지고 가서 구호하게 하고, 또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2인이 호망(虎網)을 등에 지고 병(病)을 일컬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나치정(羅致貞)·경기 찰방(京畿察訪) 유정손(柳正孫)·의원(醫員) 1인 등으로 하여금 서울에 거느리고 돌아가 유도 대장(留都大將)에게 주어 구호(救護)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갈 때 길 사이에 만약 혹 보거든, 아울러 거느려서 가도록 하라.◆◆◆◆◆

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윤문(成允文)을 불러 말하기를,

◆◆◆◆◆뒤에 떨어진 군사(軍士)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빨리 경기 도사(京畿都事)를 보내어 구호하여 오게 하라.◆◆◆◆◆

하니, 도사(都事) 민혜(閔覲)가 명을 받들어, 주식(酒食)을 가지고 가서 5,6인을 얻어 음식을 먹이었다.

【원전】 8집 15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세조 045 14/03/14(갑술) / 밀성군 이침이 아내와 온양 온정에 돌아가다》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온양 온정(溫陽溫井)에 돌아가니, 명하여 지나는 여러 고을에 친히 공돈(供頓)을 감독하고 또 담부(擔夫)를 주게 하였다. 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노차(路次)와 유련(留連)할 때에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친히 지대(支待)를 감독

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8집 16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예 종 실 록

【예종 1년 4월 18일(신미) / 최안이 온양에서 돌아오니, 정동·심회가 제천정에 나아가 맞이하다】

최안(崔安)이 온양(溫陽)에서 돌아오니, 정동(鄭同)·심회(沈繪)가 제천정(濟川亭)에 나아가 맞이하였는데,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도승지(都承旨) 권감을 보내어 궁온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연회가 과하자, 최안 등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와 노량(路梁)에 이르러 돌아오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정효상(鄭孝常)을 보내어 문안(問安)하게 하고, 또 환관(宦官) 김결(金潔)을 보내어 별하정(別下程)을 가져가서 최안에게 주게 하였다.

【원전】 8집 360면

【분류】 \*외교-명(明)

【예종 1년 7월 6일(정해) / 정현 응주가 온양 온천에 가서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에게 쌀 15석을 주도록 하다】

정현 응주(貞顯 翁主)가 온양온천(溫陽溫泉)에 가서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에게 쌀 15석을 주도록 유시하였다.

【원전】 8집 40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과학-지학(地學)

## 성 종 실 록

【성정 14년 6월 18일(기묘) / 대행 대비가 온양에 있을 때 임원준을 시켜 다시 지은 비음을 가져오게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듣건대, 대행 대비(大行大妃)가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 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여 주필천비의 비음(碑陰)을 다시 기록하게 했다고 하니, 곧 그 글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가지고 와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예전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將大王)께서 남쪽으로 순행(巡幸)하실 때 자성(慈聖)께서 실제로 함께 거둥하시어 곧 온천(溫泉)에 머물렀다. 신정(神井)의 상서로움이 있어 드디어 이름을 내리고 돌에 새겨 영원히 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금년 봄 2월에 자성(慈聖)께서 두 왕 대비(王大妃)와 함께 신천(神泉)에 거둥해 보니, 신정(神井)은 그대로 있는데 석각(石刻)은 마멸되었다. 이리하여 옛일을 회상하며 현재를 생각하니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내수(內需)의 재물로써 중각(重刻)한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신(臣) 이정·덕원군(德源君) 신 이서(李曙)·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신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主管)하게 하고, 신 임원준(任元濬)이 일찍이 이 신정(神井)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여, 이어서 그 비(碑)에 음기(陰記)를 기록하게 하였으니, 아! 신이 차마 기록하겠는가? 신이 두서 없는 말로 엮은지 이미 20성상(星霜)이 되었다. 용염(龍鬚)이 돌아오지 못함을 슬퍼하고, 인사(人事)가 쉽게 변함을 슬퍼한다. 견마(犬馬) 같은 목숨은 한 번 죽으면 그 뿐인데, 지금 또 호종(扈從)하는 데에 참여하여 외람되게 이런 명을 받았으니, 요행이 아니고 하늘이 내린 것이다. 절실하게 사모하여 슬퍼함이 지극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감히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여 절하고 전말(顛末)을 기록하였으니, 대는 성화(成化) 19년 3월일이다.◆◆◆◆◆하였다.

【원전】 10집 473면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성종 16년 3월 16일(정유) 지돈녕부사 윤흠의 즐기】

지돈녕부사(知敦寧符事) 윤흠(尹欽)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輟朝)·사부(賜賻)·조제(弔祭)를 상례대로 하였다. 윤흠의 자(字)는 경지(敬之)이고, 관향(貫鄉)은 파평현(坡平縣)이며, 우의정(右議政) 윤사분(尹士份)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문음(門蔭)으로 남부 녹사(南部錄事)에 보임(補任)되었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내섬시 소윤(內贍詩小尹)·선공감 정(線工監正) 등으로 여러 번 옮겨다. 천순(天順) 신사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탁용(擢用)되고, 옮겨서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는데, 사건 때문에 산관(散官)이 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갑신년에 세조가 온양(溫陽)에 거동할 때에 윤희가 호종(扈從)하여 특별히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겸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되었다. 성화(成化) 정해년에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고, 무자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에 가자되고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기축년에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가자되고,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가 되었으며, 갑오년에 지사(知事)에 오르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옮겨다가, 을미년에 갈려서 한성부 윤(漢城府尹)이 되고, 정유년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옮기고, 신축년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옮겨다. 이때에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는 68세이다.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인데, 공경히 섬기고 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恭)이고, 평이(平易)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간(簡)이다.

【원전】 10집 695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중 종 실 록

【중종 5년 3월 18일(계유) / 병으로 성희안이 온양에 갈 것을 청하다】

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병이 있는데, 침과 뜸도 효험이 없습니다. 의원의 말이, 목욕하여 찬 병증을 제거하여야 하겠다 하므로 말미를 받아 온양에 가려고 하였는데, 대간이 폐를 끼치게 된다고 논하니 신이 가히 가지 못합니다.◆◆◆◆◆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알았다◆◆◆◆◆하였다.

【원전】 14집 417면

【분류】 \*정론-간쟁 / \*의약-의학

【중종 11년 6월 1일(신해) / 이조 정랑 소세양이 수가 독서할 때 온양 온정에 갔으므로, 헌부가 추고하다】

이조 정랑 소세양이 수가 독서 할 때 온양의 온정에 갔으므로, 헌부가 듣고서 추고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상이 학사의 독서를 진념하여, 사가에 가지 말고 부지런히 학업에 힘쓰도록 하였으나, 세양이 상의 뜻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서지와 함께 온정에 갔다. 근처 수령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주찬을 다투어 가져와서 공궤하매, 세양이 태연히 그것을 받아 꺼림없는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시론이 그를 그르다 하였다.]

【원전】 15집 18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선 조 실 록

【선조 26년 11월 25일(을사) / 왕세자가 온양군에 머무르다】

왕세자가 저녁에 온양군에 머물렀다.

【원전】 22집 165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현 중 실 록

【현종 6년 4월 7일(계해) / 영상 정태화 등과 온천으로 거동 시의 행사들에 대해 의논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과 비국 당상 홍중보(洪重普) 등의 뵘기를 청하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동하시는 일이 정하였으니, 거동 시의 행사를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뵘기를 청했습니다.◆◆◆◆◆하고, 이어 아뢰기를,

◆◆◆◆◆호위 군병중 마병은 멀리 갈 수 있으나, 보병의 경우, 훈련 도감의 군병은 한강가에서 교대해 주고, 수원군은 충청도 경계에서 교대해 주면 충청도군이 온양까지 호위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연(輦)을 호위하는 포수는 4백명으로 교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陵)에 거동할 때는 으레 4백명을 사용하였으니, 이번 행차에는 8백명을 이용해서가 번갈아 호위해야 할 것이다. 또 내 마음은 외방의 군병을 징발하고 싶지 않다.◆◆◆◆◆

◆  
하자, 태화 등이 도감군 중에서 건장한 자를 가려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각사(各司)는 한명만 수행하되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수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발을 세워 궁궐내의 안부를 전하도록 하고 승지와 내관(內官)이 문안드리는 예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예조판서 이일상(李一相)은 남아서 약방의 당직을 서게하고, 부관(副官)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예관은 종묘에 거동하는 것을 고하게 하였으며, 훈련도감의 병사는 남아 서울을 지키도록 하였다. 바야흐로 농사철이 닥쳐서 각영에서 병사를 징발할 수 없다고 하여, 수원 군사 6천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한강 가에서 기다리고 한 부대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번갈아 호위하게 하였고, 충청의 군사도는 병사(兵史)로 하여금 한 군영의 병사만을 징발하여 충청도 경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온양에 도착한 뒤에 형세를 보아 다른 군영의 병사를 다시 징발하게 하였으며, 마병은 도감군과 금군의 군대를 이용하게 하였다. 훈련 대장 이완(李浣)을 유도 대장(留都大將)으로, 도총관 김우명(金佑明)을 호위 대장으로 삼아 입직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 안을 호위하도록 하고, 좌상 홍명하와 영부사 이경석을 유도대신으로 삼았다. 군병이 온천에 도착한 뒤에 본도에 있는 호조의 쌀을 급료로 주고, 수행한 백관도 온천에 도착한 후 급료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전】 36집 457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현종 6년 4월 11일(정묘) / 형조 판서 김좌명을 정리사로 삼아 온양으로 보내다】

형조 판서 김좌명을 정리사(整理使)로 삼아 온양에 먼저 가서 제반 일들을 정리하게 하였다.

【원전】 36집 45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 온양 온천에 거동하다】

상이 온양 온천에 거둥하였다. 상은 군복을 입고 칼과 활, 화살통을 차고 떠났는데,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행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 이조판서 김수항(金壽恒), 한성부 판윤 오정일(吳攄一), 지사(知事) 정치화(鄭致和), 예조 참판 남용익(南龍翼),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행 도승지 박세모(朴世模), 좌승지 이성징(李星徵), 우승지 장선징(張善徵), 동부승지 송시철(宋時喆), 교리 심재(沈粹), 부수찬 윤심(尹深), 집의 오두인(吳斗寅), 지평 이섬(李暹) 정언 이규령(李奎齡) 등이 각사의 관원과 종반(宗班) 승선군(崇善君) 등 8인, 의빈(儀賓)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등 5인, 침의(鍼醫) 윤후익(尹後益) 등 4인, 약의(藥醫) 이동형(李東馨)등과 더불어 따라 갔으며, 영풍군(靈鑑君) 이식(李湜)등 형제 4인도 자원하여 어가를 수행하였다. 무예별감(武藝別監) 30인, 어영군 1천 2백명, 기병(騎兵) 50명, 군퇴(軍牢)와 잡색(雜色)이 합해 4백명이었는데, 대장 유혁연과 중군(中軍) 유정(俞錠)이 이끌고 금군(禁軍) 5백 명은 별장(別將) 이지원(李枝遠)이 이끌고, 마병 4백 70명과 포수 8백명은 별장 유비연(柳斐然)·한여운(韓汝尹)이 이끌었다.

【원전】 36집 45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 온양의 행궁까지 30리마다 파발을 설치케 하다】

서울에서 온양의 행궁에 이르기까지 30리마다 파발 하나를 설치하였다. 군사와 말을 각기 다섯씩 대기시켜 그들로 하여금 문서를 교대로 전달하며 왕복하게 하였는데 9시(時) 안으로 하게 정하였다.

【원전】 36집 45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 【현종 6년 4월 21일(정축) / 오시 말에 온천에 도착하였다】

오시 말에 어가가 온천에 도착하였다. 수원 이남부터 어가가 경유하는 각읍마다 유생·부로(父老)들이 수십인이나 백여 인씩 곳곳에서 마주 나와 절하였으며 온양에 이르자 십리쯤 길 양쪽으로 인과의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상이 가끔 어가를 멈추고 위문하였다.

【원전】 36집 461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7년 3월 26일(병오) / 자전을 모시고 온양의 탕천으로 거둥하다】**

상이 자전(慈殿)을 모시고 온양(溫陽)의 탕천(湯泉)에 거둥하였는데 복색(服色)·여마(與馬)와 시종(時從)하는 백관(百官)을 모두 작년의 예대로 하였다.

【원전】 36집 51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7년 3월 30일(경술) / 직산을 출발하여 온양의 행궁에 도착하다】**

상이 묘시에 직산을 출발하여 천안에서 잠시 휴식하였고, 미시에 온양의 행궁(行宮)에 도착하였다.

【원전】 36집 51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7년 4월 1일(신해)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우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목욕하시려면 기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길일이니 잠시 목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원전】 36집 51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8년 4월 15일(기미) / 온양 행궁에 도착하다】**

상이 온양에 행궁에 도착했다.

【원전】 36집 551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1일(정해) / 은양에 머물다】**

상이 은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2일(무자) / 은양에 머물다】**

상이 은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3일(기축) 은양에 머물다】**

상이 은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5일(신묘) / 은양에 머물다】**

상이 은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6일(임진) / 은양에 머물다】**

상이 은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7일(계사) / 온양에 머물다】

상이 온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8일(갑오) / 온양에 머물다】

상이 온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29일(을미) / 온양에 머물다】

상이 온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9년 8월 30일(병신) / 온양에 머물다】

상이 온양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58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15일(무신) / 왕대비·중궁·공주들과 함께 온양으로 행차하다】

상이 왕대비를 받들고 온양 온천으로 행차하는데, 중궁이 따르고 네공주가 배행하였다.

【원전】 36집 621면

【분류】 \*왕실-비빈 /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18일(신해) / 온양 행궁에서 어영 대장 유혁연의 처리를 논의하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약방으로 하여금 들어와 진찰하게 하였다. 이때 영의정도 입시하였고, 상이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유혁연이 망령되게 저지른 일로 인하여 물의가 비등하고 대계가 이미 반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부는 피험하였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간원이 잡아다 신문할 것으로 반론 하였습니다만, 신은 허적과 상의 하였습니다. 만일 중한 죄를 준다면 매우 난처하고,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처치할 수도 없으니, 참작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관이 비록 일의 체모로 반론하였으나 잡아다 신문할 만한 정상은 없다.◆◆◆◆◆  
◆◆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비록 물어야 될 정상은 없으나 잡아다 신문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

하였다. 좌상 허적의 말도 역시 같았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군율(軍律)은 지엄하여 참(斬)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은 곤장을 치는 것입니다. 유혁연은 별장에 비할 수 없으니, 곤장을 친 후에 또 군병을 거느리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됩니다.◆◆◆◆◆

하였다. 장선징이 아뢰기를,

◆◆◆◆◆외부의 의논이 모두 만일 그때 상께서 장전(帳殿)에 나아가 직접 곤장을 쳤다면 군율의 체면을 세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나 지금 와서 곤장을 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하였다. 허적이 외뢰기를,

◆◆◆◆◆ 잡아다 신문 한 후에 예사로이 놓아 보낼 수는 없으니, 상께서 어떠한 죄로 단정 하고져 하십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 나는 파직을 시키고져 한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 파직을 하면 보고 듣는 이가 불만스러워 할 것이니, 삭직을 하고 놓아주어 백의 종군(白衣從軍)케 하고 도제조 및 중군으로 하여금 군병을 영솔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 어느 곳에서 나문하려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 관의금으로 하여금 개좌(開坐)하여 잡아다가 문초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국가 의 체모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부교리 이민서와 부수찬 김만균이 뒤따라 입시하였다. 이민서가 유혁연의 일로 전달하기를,

◆◆◆◆◆ 일이 중대하니 만일 예사롭게 처리한다면 국가의 체모와 군율에 크게 손상됩니다.

◆◆◆◆◆

하며, 곤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였으나, 상은 이미 대신의 말을 받아들여 끝내 따르지 않았다.

유혁연의 죄가 비록 망령된 짓에서 나왔으나 범한 죄가 극중하니, 비록 군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곤장으로 다스려 군병에 충당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데, 대신은 인정에 구애되고 주상은 사체를 가볍게 여겨 파직으로 논죄 하려다가 겨우 삭직하여 종군(從軍)케 하였고, 곧바로 서용하여 군병을 영솔하게 하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겼다.

【원전】 36집 622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현종 10년 3월 19일(임자)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0일(계축)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1일(갑인)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2일(을묘)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3일(병진)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4일(정사)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5일(무오)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6일(기미)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7일(경신)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8일(신유)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3월 29일(임술)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1일(계해)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2일(갑자)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3일(을축)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5일(정묘)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6일(무진)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7일(기사)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8일(경오)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9일(신미)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10일(임신)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11일(계유)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4월 15일(정축) / 온양 행궁에 있었다】

상이 온양 행궁에 있었다.

【원전】 36집 62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현종 10년 5월 14일(병오) / 온양 행행할 때 연로의 80세 이상 노인 정엽 등 26명에게  
가자 하다】

충청도 온양에 행행할 때 연로의 80세 이상의 노인 정엽등 26명을 가자 하였다.

【원전】 36집 629면

【분류】 \*인사-관리 / \*윤리-강상 / \*왕실-행행

**【현종 2년 9월 1일 / 훈련대장 이완이 온양의 온천에 가기 위해 휴가를 청하다】**

훈련 대장 이완(李浣)이 온양(溫陽)의 온천에 가서 목욕하기 위하여 휴가를 청하였다. 이에 도제조 심지원(沈之源)으로 하여금 그 직임을 겸하여 살피라고 명하였다.

【원전】 37집 24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과학-지학(地學)

## 속 종 실 록

**【속종 10년 1월 15일(신사) / 봉조하 송시열이 왕대비의 지문을 올리다】**

임금이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장차 남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도타이 일러서 만류하므로, 송시열이 드디어 진견(進見)하였다. 물러 나와서는 또 차자(笥子)를 올려 고귀(告歸)하고, 왕대비(王大妃)의 지문(誌文)을 올렸는데, 그 지문에 이르기를,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주아(周雅)에는 태사를 칭송하여 견천지매(倪天之妹)라 하였고, 송(宋)나라 사람은 선인 고태후(宣人 高太后)를 칭송하여 여중 요순(女中堯舜)이라 하는데, 아! 우리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께서는 여기에 견주어도 남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 후께서 규문 밖을 나가지 아니할 나이에 왕가(王家)에 빈(嬪)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 자의전(慈懿殿)과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인선대비(仁宣大妃)께서 그 효경(孝敬)을 자주 칭찬하셨고, 내치(內治)를 주장하게 되셔서 궁중이 다 그 인애(仁愛)를 입고 국중이 다 교화(教化)를 받았으며, 동조에 계시게 되어서는 안팎에서 더욱 그 덕에 대하여 흠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계해년 겨울에 미쳐서는 하늘이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우리 주상전하(主上殿下)께서 병환이 없어지시는 경사(慶事)를 맞게 하여 천하의 모든 백성이 바야흐로 억만년의 긴 복을 축원하였는데, 아! 무슨 까닭으로 하늘이 그 정성에 감동하면서도 그 수(壽)에 인색하여 경사에 따른 사유(赦宥)가 반포되자 유교(遺敎)가 선포되게 합니까? 아! 이른바 신(神)은 참으로 밝혀 알기 어렵고 이(理)는 미루어 알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전하께서 반호(攀號)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굴러도 뒤미치지 못하시니, 울며 생각하기를,◆◆◆◆◆선(善)이 있어도 모르는 것은 불명(不明)이요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불인(不人)이다.◆◆◆◆◆

하시며, 드디어 평일의 언행(言行)을 손수 적어서 폐부신(肺腑臣) 청성 부원군(淸城 府院君) 김



올며 청하여 억지로 드시게 하셨습니다. 그 금모(衾冒)의 제구를 다 친히 장만하고 유사(有司)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 죄지은 종실(宗室) 이정(李楨) 이남 형제가 가장 가까운 족속으로서 금중(禁中)에 출입하고 그 외숙 형제·빈객(賓客)이 우익(羽翼)이 되어 바랄 수 없는 일을 엿보아 일이 대개 말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 외세(外勢)를 끼고 터무니 없는 말로 속이고 헐박하여 거짓 말이 선조(先祖)에까지 미치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놀라와 눈이 휘둥그러져서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니, 후께서 듣고서 몹시 분통하여◆◆◆◆◆◆전에 선왕의 신하였던 자가 어찌하여 감히 밝히지 못하는가?’ 하시고, 드디어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그 근원을 구명하셨습니다. 정(楨)·연 등이 궁인(宮人)과 외람된 짓을 하여 궁금(宮禁)을 더럽혔으므로, 충익공이 놀라고 근심하여 상소하여 이것을 말하였는데, 윤희·허목(許穆) 등이 급히 청대(請對)하여 반좌(反坐)로 논하려 하고 충익공은 금오(金吾)에서 대령하니, 사기가 급박하여 졌습니다. 후께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드디어 상상과 함께 밤에 선정전(宣政殿)의 서무에 나아가 성상은 동쪽을 향하여 앉으시고 후는 문을 닫고 합내(閣內)에 계시며, 드디어 대신(大臣)과 재신(宰臣)들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슬피우시고 나서 분명히 말하기를,◆◆◆◆◆◆정·연등이 간통한 일은 아침·저녁사이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왕께서도 전에 이것을 말하셨으며, 확실하여 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궁인을 국문(鞫問)하시매 궁인이 다 사실대로 자수하니, 정·연등이 비로소 죄반게 되었는데, 후께서는 또 정등의 죄를 관용하여 그 궁인과 어울려 찬배(竄配) 만을 명하도록 성상께 권하셨습니다. 후께서 을묘년부터 선왕의 혼궁(魂宮)에 가까이 계시느라 통명전(通明殿)에 옮겨 계실 때에 조금 편찮으시다가 병진년 6월에 갑자기 심해지시니, 우리 전하께서 몸소 탕제(湯劑) 시중을 들고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에 기도하고 옥수(獄囚)를 죄다 풀어주어 신명의 도움을 비셨습니다. 조금 나으시어 대내(大內)로 돌아오시니, 성상께서는 번번이 조정의 일이 파하면 늘 입시(入侍)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쭙어 결단하셨습니다. 후께서도◆◆◆◆◆◆주상(主上)이 어리므로 내가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다.◆◆◆◆◆◆하여 문득 더불어 조용히 헤아리셨으니, 그 사업을 이은 성상을 도와 국가를 안전하게 한 방도가 크셨습니다. 이때 윤희·허목·홍우원(洪宇遠) 등의 의심과 노여움이 더욱 심해져서 감히 방자하게 범하여 배척하고,◆◆◆◆◆◆허물을 두 번 짓지 말게 하기 위하여 동정(動靜)을 조관(照管)해야 한다.◆◆◆◆◆◆는 따위 말까지 있었고, 이수경(李壽慶) 조사기(趙嗣基) 박헌(朴杰)등이 앞뒤에서 고무하고 선동하여 헐뜯고 속이며 꾀악하여 도리를 어겼습니다. 성상께서 노하여 박헌의 소를 배척 하셨더니, 허목등이 또◆◆◆◆◆◆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니, 우리 양궁(兩宮)의 지극히 효도하고 지극히 인자하신 덕이 아니었으면, 흉악한 무리가 그저 그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책이 행해지지 않으니, 윤희가 조관(照管)을 간고(幹蠱)라 속이고, 윤희를 위하여 변명하는 자는 한기(韓琦)도 조관이라는 말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한기 때에는 태후와 소제가서로 싫어하



역사하는 힘이 또 크게 줄었으니, 못 유사는 화락(華樂)하게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죄를 면할 수 있고 지친 백성은 더욱 인자하고 검소한 덕을 받았습니다. 후께서는 크게 천경(天慶)을 받아 우리 주상 전하를 낳으셨고, 처음에는 인경 왕후(仁敬 王后) 김씨(金氏)를 맞아들였습니다. 또한 신라(新羅) 임금의 후예(后裔) 영돈녕 부사(領敦寧 府事) 광성 부원군(光城 府院君) 김만기(金萬基) 따님인데, 경신년 10월에 홍서(薨逝)하셨습니다. 이듬해 정월에 후께서 계비(繼妃)를 가릴 것을 의논하셨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였으나, 후께서◆◆◆◆◆강한 나라가 옆에 있으니, 고집할 수 없다.◆◆◆◆◆하셨으니, 대개 전조(前朝)의 일에 징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깊이 근심하고 멀리 염려하시는 것이 대개 이러하셨습니다.

그 해 5월에 지금의 중궁 전하(中宮 殿下)께서 정위(正位)에 뽑히시니, 영돈녕부사 여양 부원군(驪陽 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따님입니다. 명안 공주(明安 公主)는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에게 하가(下嫁)하였습니다. 아! 우리 성모의 성덕(盛德)·지선(至善)은 태임(太任)·태사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직 그 차분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이름지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행이 아름다운 것은 자연히 도리어 맞으셨습니다. 윤희·허목이 충익공을 포함하여 정·연의 죄를 벗기려 할 때에 후께서◆◆◆◆◆내 아버지가 죄없이 망측한 데에 빠지려 하니, 내가 몰래 업고 달아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니, 그 효덕(孝德)이 여기에서 더욱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권흉(權凶)이 무함하여 혈뜬으니, 또 수찰(手札)을 내려 깊이 스스로 인책하고 조금도 원망하고 분노하시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 때 전하여 칭송하는 자는 무지(無知)한 하천(下賤)일지라도 누구인들 목메여 울지 않았겠습니까? 기미년 봄에 역적 허견(許堅)이 분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후의 작은 어머니를 때려이까지 부러뜨렸으나, 후께서는 끝내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는 듯이 하셨으니, 그 침착하여 큰 도량이 있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갑인년 이후로 구신(舊臣)이 다치는 것을 보고 늘 몹시 근심하고 상심하였는데, 우리 전하께서 뜻을 받들었으므로 놀랄 기쁨을 여러번 겪었어도 끝내 보전하여 별 일이 없었습니다. 흉악한 무리가 법에 처치된 뒤에는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자는 가볍게 죄주고, 분명히 죄가 있는 자라도 반드시 살릴 방도를 찾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종실(宗室)·경전(馨甸)의 후손을 성상께서는 오히려◆◆◆◆◆우리 선왕의 골육(骨肉)이다.◆◆◆◆◆하여 관금(棺衾)을 갈아서 그 고장(藁葬)을 고치게 하셨는데, 대개 후의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구신중에 물러가려는 자가 있으면 수찰(手札)로 만류 하셨으니 또한 선인(宣仁)의 고사(故事)와 같은 것입니다. 후께서는 자성(資性)이 총예(聰睿)하시어, 한번 귀와 눈을 거친 일은 다 종신토록 잊지 않고, 견식(見識)이 밝고 넓어서 고금이 치란(治亂)을 통달하셨습니다. 이미 곤극(坤極)에 자리하시고서는 정성으로 위를 섬기고 의리로 아래를 경계하셨고, 더욱이 안팎을 엄히 방금하여 그 사친(私親)을 돌보는 데에는 정례(程例)가 있고 아우들에게 교만하고 방자하지 말라고 훈계하셨으므로, 끝내 감히 티끌만큼도 은택을 바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공주 세 사람 중에서 맏이와 둘째가 다 어린 나이에 서거하고 명안 공주

만이 남았으므로 그 사랑이 심하였다 하겠으나, 출합(出閤)하기에 미쳐서는 《소학(小學)》을 외고 써서 경계하기를, ◆◆◆◆◆ 사치로부터 검약으로 들어가는 어렵다 ◆◆◆◆◆ 하고 그 자송(資送)·장속(裝束)을 다 구제(舊制)보다 줄이셨습니다. 이 때 큰물과 가뭄이 있어서 백성이 굶주렸는데, 후께서 슬퍼하여 음식을 폐하고 공상(供上)한 물건과 탕장(帑藏)을 내어서 진구(賑救)를 돕기까지 하셨습니다. 후께서 승하하신 뒤에 여염(閭閻)에서 혹 전하기를, ◆◆◆◆◆ 주상께서 병환이 심하실 때에 궁중에 요사한 무당이 일이 있었다. ◆◆◆◆◆ 하므로 법사(法司)가 가두고 유신(儒臣)이 말하였으나, 성상께서 유신의 소(疎)에 답하기를, ◆◆◆◆◆ 자성(慈聖)께서는 평소 에 식견이 고명하여 무당의 떳떳하지 않은 말은 아닌게 아니라 매우 미워하여 몹시 끊으셨으니, 어찌 믿고 현혹되셨을 리가 있겠는가? ◆◆◆◆◆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사람의 의혹이 얼음 녹듯이 풀리니, 전교(傳敎)에 ◆◆◆◆◆ 천지의 성(性)에 밝은 자는 신괴(神怪)로 현혹 할 수 없다는 것이 틀림없다. ◆◆◆◆◆ 하셨습니다. 대개 옛일로 논하면 송(宋)나라의 고태후(高太后)가 거룩하기는 거룩하였으나, 주 부자(朱夫子)가 말하기를, ◆◆◆◆◆ 철종(哲宗)이 매우 유감을 품고 고태후가 늘 크게 슬퍼하였으니, 그 만남은 불행하다 하겠다. ◆◆◆◆◆ 하였는데, 우리 성모께서는 위에서 의롭고 아래에서 받들어서 인자와 효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못 흉악하고 패역(悖逆)한 계책이 끝내 행해지지 못하였으니, 고 태후에 비하면 어찌 견주어서 남음이 있을 뿐이겠습니까? 대개 마찬가지로 말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남(李南)의 교화를 논한 자가 후비(后妃)만 칭송하고 문왕(文王)을 근본 삼지 않은 것은 주부자가 매우 그르게 여겼으니, 이제 성모께서 여기에 이르신 것이 어찌 우리 현종께서 자신을 바꾸고 집을 다스르신 분명한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성모의 큰 덕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마땅하나, 불행히도 현종께서 병환이 잦아 우리 성모께서 늘 마음을 졸이고 효종·인선 왕후의 상(喪)에 여섯 해 동안 애모(哀慕)하고 갑인년의 대상(大喪)에는 외로이 근심을 머금고 또 두 공주와 인경 현비(仁敬賢妃)의 상을 통곡 하였고, 이어서 우리 전하께서 나이 어리고 병약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시는데 밖에는 권간(權奸)이 줄지어 섰으므로, 나라의 명백이 철류(綴旒)이니, 이때를 당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박하였던 것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겨울 성상께서 이상한 병에 걸려 증세가 비상하실 때에는 또 추위를 무릅쓰고 없는 힘을 다하여 하늘에 목숨을 빌어서 겨우 신명의 위로를 받게 되자 곧 스스로 병환이 걸리셨습니다. 아! 하늘이 어찌하여 이 큰덕이 있는 이를 내고서 복록(福祿)은 내리지 않아 우리 성상께서 몹시 슬픔을 더하시고 이 신민이 울부 짓고 사모하는 것이 더욱 깊게 합니까? 그러나, 자신에 성덕(聖德)이 있어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 공(功)이 사직(社稷)에 남고 은택이 백성에 미쳐서 후세 억만 년에 음덕(陰德)을 내리시니, 참으로 하늘이 덕이 이는 이를 낸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상의 효사(孝思)를 조금 위로 하고 또 신민의 지극한 슬픔을 늦출 것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타이 비답(批答)하고 장려하여 하유(下儒)하고, 이어서 올라와 시간(時艱)을

구제하라 하였다.

【원전】 38집 674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어문학-문학(文學)

【숙종 43년 2월 6일(신묘) / 제조와 우의정 등이 온천 거동에 대해 논의하다】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와 우의정(右議政) 이이명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불러서 보았다.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성후(聖侯)의 안질이 이러하신데, 미처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은 온천(溫泉)이고 선조(先朝)에서 이미 기이한 효험을 보셨으므로 혹 이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질은 손상받는 것이 각각 다르고, 또 선조에서는 춘추가 강성하실 대이었으나, 이제 성상께서는 쇠약해 가시는 나이므로, 피부가 수척해져서 가볍게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와서 시험삼아 목욕하는 것은 수기(水氣)가 이미 새어 결코 효험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겠으니, 근력이 거동하실 만하면 차라리 이때에 거동하여 친히 목욕하여 효험을 바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직 명백하게 하교 하시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이명은 말하기를,

◆◆◆◆◆온천에 거동하시어 조금이라도 이로움이 있다면 어찌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문과 뜰사이에서도 오히려 행동하기 어려워 전각(殿閣)에 한가히 거처하시며 침수(寢睡)도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더구나 거동하여 노동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또 목욕한 뒤에는 허약해지고 피곤해진다는 것이 과연 방서(方書)에 말하는 것과 같다면, 그 우려하는 것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단지 다하지 못하였다는 회한(悔恨)을 없앨 수 있다고 하고 하셨으니, 군하(群下)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길어와서 목욕하면 반드시 그 효험이 없을 것이니, 성의(聖意)가 어떠하신지 명백히 하교하셔야 마땅합니다.◆◆◆◆◆

하고 제조 민진후가 말하기를,

◆◆◆◆◆온천에서 목욕하여 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서(醫書)에 실려 있지는 않으나, 의서에,◆◆◆◆◆현부(玄府)가 막히면 반드시 안질(眼疾)이 된다◆◆◆◆◆하였으니, 현부는 곧 땀구멍입니다. 온천에 목욕하여 땀을 내어 현부가 트이면 안질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의서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에서 안질을 오래 앓으시다가 을사년에 처음 거동하여 시원하게 기이한 효험을 보셨으므로, 하교한 것이다. 요즈음 입이 써서 약을 들 수 없고, 한때 침을 맞아도 반드시 효

힘을 바랄수가 없다. 온양(溫陽)에 가는 것은 스스로 기력을 헤아리면 미치지 못할 염려가 없을 듯하다. 다만 목욕한 뒤에 이해(利害)가 어떠할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두부(頭部)를 감고 물을 뿌려 씻는다면 어찌 해롭기야 하겠는가?◆◆◆◆◆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가서 목욕하시는 것으로 정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번 가서 목욕하면 다하지 못하였다는 희환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니, 거동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조에서 온양에 거동하신 것은 을사년부터 기유년까지 모두 3월에 하셨으니, 가는 날짜를 이에 의가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찬찬하게 날짜를 배정하여 혹시라도 서둘러 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할 듯 합니다.◆◆◆◆◆

하였는데, 민진후가 7일로 나누어 배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또 이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일이나, 이런 흉년을 당하여 폐단을 끼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하여 모든 일을 힘써 줄이도록 명하였다. 따라서 배종(陪從)하는 신하들은 선조에 견주어 수를 줄이고, 모든 변통할 만한 것은 조건을 상정(詳定)하여 폐단을 없애도록 힘쓰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마병(馬兵)이 대가(大駕)를 호위(扈衛)하고 향병(鄉兵)이 뒤따르므로, 야차(野次)하는 행궁(行宮)에서 결진(結陣) 해야 하는데, 수가 적으면 모양을 이루기 어렵고, 지금 향병을 징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성(都城)에 머무는 군사는 마병·금군(禁軍)을 합하여 2,3초(哨)만 남겨두고 도감(都監)의 군사 2천이 호종(扈從)하면, 비록 향병이 아니라도 거동할 수 있겠으나, 저 곳에 이른 뒤에 행궁을 시위(侍衛)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어찌 향병을 징발할 수 있겠는가? 물러가서 군사를 거느리는 관원과 상의하여 선처하라.◆◆◆◆◆하였다. 임금이 또 을사년 거동 때에 과거(科擧)를 설행(設行)한 전례를 물었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을사년 이후 5년 동안에 을사년과 병오년 두 번만 과거를 설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히 거동하고 과거를 설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서운해 할 것이다.◆◆◆◆◆

하였다. 민진후가 환궁(還宮)한 뒤에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설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답하지 않았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도성에 머무는 군사인 두 군문(軍門)은 교대로 번들어야 할 것이고, 표하(標下)가 또 5, 6백명 있어서 그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대오(隊伍)를 만들어 도성에 머물게 할 뿐인데, 향병을 징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병을 어찌 징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전에는 충청 감사(忠淸 監司)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호위 하였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에 토산(土產)을 진상(進上)하는 것은 전례가 있더라도 특별히 면제하라고 미리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이미 물러가고 나서 예조(禮曹)에서 3월 초 3일로 온양에 거동할 길일(吉日)을 가려서 아뢰었다.

【원전】 40집 635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과학-지학(地學) / \*의약-의학(醫學)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숙종 43년 2월 12일(정유) / 온천 거동지역의 진휼책에 대해 하교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이번에 온천에 거동하는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마침 흉년을 당하여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많을 것이니,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특별히 진휼(軫恤)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지나는 곳과 근처 각 고을의 병신년 조(條)의 전세(田稅)-대동(大同)을 품지하여 적당히 줄여서 내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는데, 비국에서 복주하기를,

◆◆◆◆◆온양(溫陽) 한 고을은 병신년조의 전세를 완전히 감면하고, 호서(湖西)는 병신년 대동(大同)의 실결(實結) 7만 6천 10결을 결마다 각각 2두(斗)씩 감면하면 감면할 것이 1만 1천 3백 40석(石)이 될 것인데,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출역(出役)이 어렵고 쉬운데에 따라 구별하여 감면해 주게 하고, 경기의 고을은 결마다 대동미(大同米) 3두씩을 감면하소서.◆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원전】 40집 63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숙종 43년 2월 16일(신축) / 병조판서 이건명이 온양 지경의 셋길 이용을 건의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온양(溫陽) 지경 안의 옛길은 50년동안 황폐하여 무덤이 많고 나무가 자라 길을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길 하나가 있는데 옛길에 견주어 7리가 가깝다 하니,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길이 편리하고 가깝다면 셋길로 가야 마땅하다.◆◆◆◆

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병조(兵曹)의 역마(驛馬)가 매우 피곤할 것이니, 호조(戶曹)의 별고(別庫)에 있는 쌀과 콩 각각 1백석(石)을 얻어 역졸(驛卒)에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승지(承旨) 이성조(李聖肇)가 말하기를,

◆◆◆◆대가가 온천에 거둥하신 뒤에 경외(京外)의 체배(除拜)된 관원이 숙사(肅謝)하는 일은 품정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배종(陪從)하는 관원이 이배(移排)되면 대전(大殿)에만 숙배하고 대가(大駕)가 환궁한 뒤에 비로소 중궁전(中宮殿)과 세자궁(世子宮)에 숙배(肅拜)하고 유도(留都)하는 관원과 경중(京中)에 있는 사람이 혹 벼슬을 옮기거나 제수(除授)되면 먼저 중궁전과 세자궁에 숙배하고 대가가 환궁한 뒤에 대전에 숙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원전】 40집 63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숙종 43년 2월 22일(정미) / 거둥시 찬물에 진배를 줄이고 온양 옛길을 개수하게 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 하였을 때에 정리사(整理使)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온천에 거둥하실 때에 각참(各站)에서 바치는 찬물(饌物) 가운데 산 노루와 산 꿩은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두가지는 산 것이 아니라도 품질과 맛이 변하지 않았으면, 봉진(封

進)하도록 허가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도록 하였으니, 썩과 노루를 진배(進拜)하지 말  
게 함이 옳다.◆◆◆◆◆

하였다. 권상유가 또 말하기를,

◆◆◆◆◆연(輦)이 지날 때에 길이 향교(鄉校) 앞을 거치게 되니, 연에서 내리시는 절차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하였는데,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향교를 지날 때에는 가교(駕橋)에서 내려 인부가 낮추어 받들고 지나는 것이 마땅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권상유가 또 말하기를,

◆◆◆◆◆듣건대, 병판(兵判) 이건명(李健命)이 아뢰바에 따라 천안(天安)부터 온궁(溫宮)까  
지는 셋길을 닦을 것이라 합니다. 이른바 셋길에는 좁고 진창이 많이 있으나, 옛길은 이런 폐단  
이 없습니다. 지사(知事) 강현의 집에는 근처 산소를 썼는데, 어로(御路)가 용호(龍虎)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길렀는데, 이제 나무가 다 말라 죽었으므로, 개수(改修)하기 어렵지 않습니  
다.◆◆◆◆◆

하니, 임금이 옛길을 닦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농사의 형편과 밀·보리가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권상유가 말하기를,

◆◆◆◆◆지금 본 바로는 잘 익을 희망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관명(李觀命)이 백홍(白虹)이 해를 꿰뚫은 이변 때문에 진계(陳戒)하  
고, 또 하유(下諭)하여 백성의 고통을 물어 곧 행조(行朝)에 장문(將聞)하게 하여 곧 변통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인하여 경기·충청 두 도의 감사(監司)에게 하유 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0집 637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 / \*과학-천기(天氣) / \*구휼  
(救恤) / \*농업-농작(農作)

【숙종 43년 3월 3일(무오) / 임금이 온양에 거둥하다】

임금이 온양(溫陽)으로 거둥하였다. 사시(巳時)에 대가가 창덕궁(昌德宮)을 나가 승례문(崇禮門)  
을 거쳐서 서빙고(西氷庫)의 강가에서 주정(晝停)하고 왕세자가 나룻가까지 따라가서 지송(祗送)

한 뒤에 궁으로 돌아갔다. 미시(未時)에 임금이 배를 타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신시(申時)에 배에서 내려 가고(駕輜)를 타고 떠나 저녁에 과천(果川)의 행궁(行宮)에서 유숙하였다.

【원전】 40집 63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숙종 43년 3월 6일(신유) / 직산 도신이 어제를 새겨 정자에 걸다】

현종(顯宗)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에 직산에 주필하여 한 작은 정자(亭子)를 새로 짓고, 영소(靈沼)라고 이름 붙이고 두어 무(畝)쯤 되는 못을 판 다음에 내시에게 명하여 연(蓮)씨를 넣게 하였는데, 꽃과 잎이 매우 무성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올라 보고 느낌이 있어 시(詩)한 장 지으니, 대가를 따라온 신하들이 다 화답(和答)하였는데, 도신(道臣)이 마침내 어제(御製)를 새겨 정자에 걸었다.

【원전】 40집 640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숙종 43년 3월 27일(임오) / 대가가 온양을 떠나 천안 행궁에서 유숙하다】

사초(巳初)에 대가(大駕)가 온양(溫陽)을 떠나 저녁에 천안 행궁(天安 行宮)에서 유숙(留宿)하였다.

【원전】 40집 64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숙보 43년 3월 3일(무오) / 임금이 온양에 거둥하다】

임금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다.

【원전】 40집 65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숙보 43년 3월 8일(계해) / 대가가 온양 행궁에 머물다】

대가(大駕)가 온양 행궁(行宮)에 머물렀다.

【원전】 40집 65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성종 14년 2월 16일(기묘) / 삼대비가 온양에 마중 나가다】**

삼대비(三大妃)가 온양 온정(溫陽溫井)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먼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불러 전교하기를,

“처음에 주정소에서 지송하려고 하였으나,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하다. 내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강변에 이르러 <거기에서> 지송하겠다. 삼대비전(三大妃殿)께서 강(江)을 건너 뒤에 나도 돌아오려고 하는데, 경(卿)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이윽고, 삼대비(三大妃)가 주정소에 이르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에게 분부하여 삼전(三殿)의 수레를 따르는 재추(宰樞) 등을 불러 술을 내려 마시게 하였다. 백관에게 명하여 먼저 강변에 나아가서 길 왼쪽에 차례로 서 있게 하였다. 임금이 강변에 거둥하여 말에서 내리었다. 차례로 입대(立待)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하였다. 삼전이 이르니, 임금은 무릎을 꿇고, 백관들은 부복(俯伏)하였다. 삼전이 배에 오르니, 임금이 이어 일어섰다. 삼전이 강을 건너 연에 올라 수십 보쯤 갔는데, 임금은 한 참 동안 서 있다가 삼전이 멀리 간 다음에 환궁(還宮)하였다.

【원전】 10집 43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과학-지학(地學)

## 영 조 실 록

**【영조 25년 10월 29일(갑진) / 가려움 증세가 가시지 아니하여 온양 온천의 물을 두 번 길어 올 것을 허락하다】**

임금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를 소견하였다. 이때에 성궁(聖躬)의 가려움 증세가 가시지 아니하여 여러 신하들이 온천(溫泉)의 물을 길어다가 훈세(薰洗)할 것을 청하였다. 온양(溫陽)은 서울에서 거리가 3일의 노정(路程)이 되어 임금이 민폐(民弊)를 염려하여 어렵게 여겼는데, 강청(強

請)한 연후에 단지 두 번만 길어 올 것을 허락 하였다.

【원전】 43집 354면

【분류】 \*왕실(王室)

**【영조 25년 11월 3일(무신) / 온천 물로 훈세하고 온천 감회시를 짓다】**

임금이 온천 물로 훈세(薰洗)하고 숙고(肅考)의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한 일을 추억하여 온천 감회시(溫泉感懷詩)를 지었다.

【원전】 43집 354면

【분류】 \*왕실(王室)

**【영조 25년 12월 23일(정유) / 제조 김상로가 다시 온천 물을 길어 오게 할 것을 청하나 정지토록 분부하다】**

약방에서 입건하였다. 제조(提調) 김상로가 다시 온천(溫泉) 물을 길어 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지토록 하라. 내가 온양(溫陽)의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세시(歲時)를 지내게 하련다. 하였다.

【원전】 43집 358면

【분류】 \*왕실(王室)

**【영조 26년 9월 12일(신해) / 온천에 거둥하여 과천현에서 목다】**

임금이 온천(溫泉)에 거둥하여 과천현(果川懸)에서 목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패영(貝纓)에다 견영(絹纓)을 함께 맨 것은 지난날 온양(溫陽)에 거둥할 때 처음 하기 시작한 것으로, 대개 끊어질까 근심해서였는데, 그 후에도 이 때문에 풍습이 되고 말았다.

하니, 승지 오언유(吳彦儒)가 말하기를,

듣건대, 호수(虎鬚) 역시 그 때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백관들이 보리 이삭을 갖 위에 꽂았던 것인데, 그 후에 그대로 호수를 꾸미는 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였다.

【원전】 43집 380면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영조 26년 9월 16일(을묘) / 대가가 온양의 행궁에 머무르다】**

대가가 온양(溫陽)의 행궁(行宮)에 머물렀다.

【원전】 43집 381면

【분류】 \*왕실(王室)

**【영조 26년 9월 20일(기미) / 온양군의 금년 전세를 감하고, 윤증에의 처제에 대해 이른다】**

온양군(溫陽郡)의 금년 전세(田稅)를 감하였다. 우의정 정우량이 말하기를,

◆◆◆◆◆ 온양은 주필(駐蹕)하는 곳이니, 선조 정유년의 고사에 의해 전세를 감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어서 정우량에게 말하기를,

◆◆◆◆◆ 윤증(尹拯)에게 치제(致祭)를 명한 것은 그가 일찍이 의정(議政)을 지내서이지 선정(先正)으로 사제(賜祭)한 것이 아니므로, 윤봉구(尹鳳九)의 상소가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원전】 43집 382면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영조 26년 9월 24일(계해) / 대가가 직산에서 머무르고, 이태중의 숙사에 대해 논의한다】**

대가(大駕)가 온양군에서 돌아와 직산(稷山)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묻기를,

◆◆◆◆◆ 병조 참지 이태중(李台重)은 이미 숙명(肅命)하였는가?◆◆◆◆◆

하니, 승지 남태기(南泰耆)가 말하기를,

◆◆◆◆◆이태중은 숙사(肅謝)하지 않고 온궁(溫宮) 문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을 기록해 직산으로 잡아들이라.◆◆◆◆◆

하였는데, 어가가 직산에 이르러 이태중을 잡아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 역시 늙어서 임금이 임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내가 사율(師律)로써 하고 하였는데 기일이 되어도 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는 곧 군행(軍行)이니, 네가 거리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상소하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이태중이 진도(珍島)에서 올라올 때에 거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서 지영(祗迎)하였으며 인하여 제수(除授)하는 명이 있자 몸을 바쳐 영직(榮職)을 얻었다는 것을 혐의 하였는데 이후부터 그 역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할 것이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수(河水)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며, 나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지(參知)를 체차하고, 오위 장(五衛 裝)에 특별히 제수하여 어가를 따르게 하라.◆◆◆◆◆

하니, 좌의정 김약로가 말하기를,

◆◆◆◆◆참지로 숙사하게 해야지, 오위 장으로 어가를 따르게 하는 것은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것인데 그가 어찌 참지로 사은(謝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참지로 즉시 숙사하도록 분부하라.◆◆◆◆◆

하고, 잡혀 나오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태중이 이처럼 늙었구나.◆◆◆◆◆

하니, 승지 오언유(吳彦儒)가 말하기를,

◆◆◆◆◆이태중이 등제(登第)한 지가 이미 20년이 되었는데, 사모(紗帽)를 쓰고 벼슬한 때는 아주 드물었으며 단지 한 번 사명(使命)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갔을 따름이고, 그 나머지는 남북으로 귀양을 가 늙었습니다. 지금 진도에서 5일을 빨리 달려 행궁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

하니, 도승지 조명리(趙明履)가 말하기를,

◆◆◆◆◆어제 갖은 방법으로 이태중에게 권유하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움직이게 하기 어려운 자라고 하겠습니까.◆◆◆◆◆하였다.

【원전】 43집 382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영조 36년 7월 18일(경신) / 온천에 행차하기 위해 출발하여 과천에서 유숙하다】**

왕세자가 온양(溫陽)에 행차하였다. 이때 예후(睿候)가 습종(濕腫)으로 편치 못하였는데,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고 온천에 목욕하기를 의논해 정하니 대조(大朝)께서 이를 허락하였다. 진시(辰時)에 창덕궁(昌德宮)에서 출발하여 한강 가에 도착하니, 이때 강물이 크게 불어서 선창(船艙)을 정돈해 기다리지 못하여 용주(龍舟)가 건너지 못하였는데,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급(尹汲)이 피를 써서 큰 배 수십 척으로 돛을 달고 선도(先導)로 하여, 굵은 동아줄 수십 개로 용주를 여러 배에 매어, 오후에 다행히 잘 건너 과천(果川)에서 유숙하였다. 병조 좌랑으로 하여금 각사(各司)를 적간(摘奸)하여 공해(公解)에 머물러 자게 하고 민가(民家)에 주접(住接)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부(師傅)·빈객(賓客)이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원전】 44집 4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

**【영조 36년 7월 23일(을축) / 분승지와 경기·충청 도신에게 왕세자의 행차시 백성을 매질치 말 것을 신칙하다】**

하교하기를,

◆◆◆◆◆밤낮으로 마음을 쓰는 것은 오직 군민(軍民)에 있다. 온양(溫陽)에 들어가는 날 밤 비오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같이 하늘이 푸르름은 삼영(三營)의 5백 60군사를 권고(眷顧)하는 뜻이다. 별떡 일어나 하늘의 뜻을 체득하여 힘써 고홀(顧恤)을 더함이 마땅하다. 승정원에서 분승지(分承旨)와 이도(二道)의 도신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길가 백성들을 매질하여 쫓아내지 말 것을 금오랑(金吾郎)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원전】 44집 4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과학-천기(天氣)

### 【영조 대왕 행장(行狀)】

21년 을축(乙丑) 춘정월(春正月)에 관서 어사(關西御史)가 돌아와, 영변부(寧邊府)에 육상궁(毓祥宮)에서 절수(折受)한 것이 있는데, 자못 민폐가 된다는 것을 아뢰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은 다 일체(一體)인데, 더구나 선조에서 지성으로 사랑하고 돌보신 백성이겠는가? 폐지하라.◆◆◆◆◆하셨다.

3월에 왕께서 대보단(大報壇)에 친향(親享)하려 하시는데, 못 신하가 말리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더 노쇠하면 몸소 행하려 하여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친향하셨다. 명하여 만동사(萬東祠)를 수리하고 면세전(免稅田)을 주게 하셨다.

하6월(夏六月)에 관동(關東)의 공삼(貢蔘)을 줄이고 속전(續田)을 주어 민역(民役)에 보태게 하셨다.

추7월(秋七月)에 하교하기를,◆◆◆◆◆우리 동방의 도학(道學)·문장(文章)은 고려 포은(圃隱)이 실로 창도하였으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근년 송경(松京)에 거둥하였을 때에 부조현(不朝峴) 두문동(杜門洞)을 표창하여 주 무왕(周武王)이 상용(商容)의 여(閭)에 식(式)하고 비간(比干)의 묘(墓)를 봉(封)한 일을 본뵈었는데, 이제 듣건대, 두문동의 후손에 장사꾼이 많다 하니, 등용해야 하겠다.◆◆◆◆◆하셨다.

동 11월(冬十一月)에 동조(東朝)께 잔을 올려 수를 비셨다.

22년 병인(丙寅) 춘2월(春二月)에 왕께서 문학신(文學臣)을 불러 말씀하기를,◆◆◆◆◆옛사람이 글을 읽어서 방심(放心)을 되찾은 데에는 뜻이 있다. 내가 스스로 《소학훈의(小學訓義)》를 찬수(纂修)하고 늘 평소에 세종께서 동방의 성인으로서 예악(禮樂)을 제작하신 것을 몸소 생각하나, 이제 내가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는가? 오직 평소에 보고 들은 것과 계술(繼述)하는 뜻을 대략 적어서 스스로 경성(警省)하고 또 후세의 자손에게 보일 뿐이다.◆◆◆◆◆하셨다. 드디어 날마다 편전(便殿)에서 인대(引對)하여 내편(內篇)·외편(外篇)을 지으셨는데, 계음식(戒飲食)에 이르러 신하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전에 우리 선조(宣祖)께서 처음 대통(大統)을 이으셨을 때 궁인(宮人)이 도량을 시험 하려고 음식을 짐짓 깨끗하지 않게 하였으나 성조(聖祖)께서 조금도 낮빛이나 말씀에 나타내지 않으시니 궁인이 황공하여 그만 두었는데, 이제까지 궁중에서 아름다운 일로 전하여 온다. 내가 음식에 대하여 가린 적이 없는 것은 이어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하셨다.

서책이 완성되니 《자성편(自省編)》이라 이름짓고, 이어서 못 신하에게 경계하기를, ◆◆◆◆◆  
 ◆이제부터 언동(言動)이나 정령(政令)이 《자성편》에 어르러지는 것이 있거든 《자성편》에 따라  
 서 경계를 아뢰라. ◆◆◆◆◆하셨다. 얼마 뒤에 왕께서 유신(儒臣)을 소접(召接)하시는 것이 자  
 못 드물었는데, 유신이 《자성편》을 인용하여 경계하니, 왕께서 칭찬하고 표피(豹皮)를 내리셨다.  
 하4월(夏四月)에 왕께서 하교하기를, ◆◆◆◆◆땅에서 재물이 나는 것은 한정이 있는데 군국  
 (軍國)의 수용(需用)은 절도가 없다. 한번 사신이 갈때에 광은(鑛銀) 10만을 써서 왕공(王公)·대부  
 (大夫)·서필(庶匹)에게 쓰이는 능라(綾羅)를 채웠는데, 이제는 궁벽한 초야(草野)에서도 능라를 쓰  
 므로 한나라의 재력을 다하여 한때의 사치를 돕고 있다. 아! 한탄스러워 견딜 수 있겠는가? 대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그보다 심하게 하거니와, 이번 절사(節使)에서 비  
 못하여 위로는 곤의(袞衣)부터 아래로는 조의(朝衣)에 쓰이는 능라를 일체 엄금하되 군용(軍用)은  
 이 제한에 넣지 않는다. 여기는 자가 있으면 서장관(書狀官)은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죄 주  
 겠다. ◆◆◆◆◆하셨다. 이날 밤에 승지(承旨)·옥당(玉堂)을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평소에 거친 배옷을 입고 흰 베로 만든 관을 쓰는 데에 뜻이 있어 궁중에서 먼저 하려 하였으나,  
 위로 자성(慈聖)을 받들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었다. 이제 마침 느낌을 일으켜 자성께 평소의  
 뜻을 환히 아뢰니, 자성께서 기뻐하여 말씀하기를, 「검약(儉約)을 나타내신 것은 열조(列朝)의 성  
 대한 일이다. 네가 뜻이 있으면 대저 무엇이 어려우랴? 화려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  
 다.」 하셨다. 이제부터 궁중에서 상투를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소매를 넓히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옷이 땅에 끌리지 않을 수 있다. 아! 중외(中外)의 신서(臣庶)는 모두 이 뜻을 몸받아 백성으로  
 하여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되게 하라. ◆◆◆◆◆하셨다. 왕께서 다시 《육선공주의(陸宣  
 公奏議)》 가운데에서 여섯 가지 말을 써 좌우(座右)에 붙여 스스로 경계하셨는데, 남에게 이기기  
 를 좋아하는 것과 잘못을 가르쳐 줌에 듣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변설에 능란한 것과 총명을 자  
 랑하는 것과 위엄을 돋우는 것과 강박을 함부로 누리는 것이었다. 신하들에게 명하여 우러러보게  
 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여섯 가지 병폐를 범하거든 경들이 경계 해야 한다. ◆◆◆◆◆하셨다.  
 또 말씀하기를, ◆◆◆◆◆위징(魏徵)이 당 태종(唐太宗)에게 경계하기를, 「처음에는 간(諫)하는  
 자가 많았으나 이제는 간하는 자가 적다」 하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듣기를 좋아하므로 간하  
 는 자가 많았고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간하는 자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하셨다.

추8월(秋八月)에 왕께서 유신(儒臣)을 불러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을 강독(講讀)하실 때에  
 유신에게 말씀하기를, ◆◆◆◆◆이(理)와 의(義)는 천하 만세(天下萬世)의 공물(公物)이다. 제자  
 와 스승사이라도 반드시 구차하게 같이 할것이 없는데, 더구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구차하  
 게 맞추는 것이 옳겠는가? ◆◆◆◆◆하셨다.

처음에 왕께서 관저편을 문왕(文王)이 지은 것이지 궁중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  
 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신(筵臣)이 궁중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있었다. 왕  
 께서 벼 베기를 보려 하셨는데,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대저 친경(親耕) 뒤에는 적전은 백성에게 맡겨서 경종(耕種)하는데, 구곡(九穀)을 심지 않았고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신(神)을 속일 수 있는가? 이제부터 구곡을 심어서 제물을 채우라.◆◆◆◆◆하셨다.

9월에 조태구(趙泰耇)·유봉휘(柳鳳輝)·최석항(崔錫恒)·정해(鄭偕)·권익관(權益寬) 등의 벼슬을 추탈(追奪)하였다. 처음에 왕께서 전 대사헌(大司憲) 박필주(朴弼周)를 불러다가 벼슬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올리고 치도(治道)를 자문하셨는데, 박필주가 수차(袖笏)를 바쳐 우선 신축년·임인년의 역적들의 죄를 바르게 하기를 청하니, 왕께서 침음(沈吟)하다가 말씀하기를,◆◆◆◆◆반드시 대신과 익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하셨다.

이때에 이르러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조태구는 전하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부터 꺼리는 마음을 남몰래 품고◆◆◆◆◆모험(冒嫌)◆◆◆◆◆이라는 두 자를 만들어 냈습니다.◆◆◆◆◆저위(儲位)가 이미 정해졌을 때에는 차자를 올려 역적 유봉휘를 구하되 충적(忠赤)이라고 칭찬하였고, 대리(代理)하라는 명이 있었을 때에는 대간(臺諫)의 말을 없신 여기고 북문(北門)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 하였을 때에는 예전에 양옥(梁獄)을 캐지 말게 한 일이 있다는 말을 감히 아뢰었고, 백망(白望)의 공초(供招)가 나왔을 때에는 죽게된 가운데에서도 살길을 찾는다는 말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 전후의 흉언(凶言)은 한 번 굴러서 유봉휘의 상소가 되고 두 번 굴러서 김일경(金一鏡)의 교문(教文)이 되고 세 번 굴러서 무신년에 역적들이 임금을 헐뜯고 옥하게 되었습니다. 조태구는 관작(官爵)을 추탈하소서.

신축년의 건저(建儲)는 우리 경종(景宗)께서 숙고(肅考)의 유의(遺意)를 몸받고 자성(慈聖)의 명명(明命)을 받들어 손수 써서 면대하여 주신 것이므로 처분이 광명(光明)한데도, 유봉휘는 바쁘고 갑작스러워 정밀하지 못하였으며 시켜서 독촉하였다 하였고, 종사(宗社)를 부탁한 데가 있어 팔역(八域)이 함께 기뻐하는데, 유봉휘는 인심이 의혹하여 오래 되어도 정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무인신례(無人臣禮)◆◆◆◆◆라는 녀 자로 말하면 이는 한(漢)나라 어사(御史)가 폐립(廢立)을 탄핵한 말인데, 경묘(景廟)께서 마침내 사속(嗣續)이 없으실 것을 그만이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자손의 번창을 바란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병환을 숨겼다는 논의가 비롯된 까닭입니다. 유봉휘는 관작을 추탈하소서' 하였다.

또 논하기를,◆◆◆◆◆이광좌(李光佐)가 무옥(誣獄)을 꾸며낸 것은 백망의 공초에서 죄다 드러났고, 역적 김일경이 교문(教文)을 지은 뒤에 본병(本兵)에 발탁하여 의망(擬望)하여 마치 공로를 갚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잠(李潛)의 흉언을 역적 김일경이 무릉(茂陵)에 견주었는데, 이광좌가 답습하여 포증(褒贈)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며, 윤태징(尹泰徵)·이사성(李思晟) 등은 모두 이광좌가 끌어들이려 낸 자인데, 무신년에 난을 일으킨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석항이 무옥을 주장한 것은 조태구와 흉심(凶心)을 같이한 것이고, 무옥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역적 목호룡을 녹훈(錄勳)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청(淸)나라에 주문(奏聞)하고 위세를 빌려 위협하려 하였습니다. 박상검(朴尙儉)의 옥사를 늦추어 지레 죽게 만든 것으로 말하면 캐어 물을 길 이 끊어지게 한 것이고, 대리를 전선(傳禪)에 견준 것은 말의 뜻이 흉참(凶慘)합니다. 조태억(趙泰億)이 지은 교문의 지의(指意)는 김일경과 서로 안팎이 되고, 정책 국로(定策國老)이니 문생 천자(門生天子)이니 아된 것은 당(唐)나라 환관(宦官)이 어두운 임금을 응립한 일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김일경이 지은 교문에는 접혈(接血)이라느니 행배(行盃)라느니 하는 따위 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시끄러이 퍼뜨리도록 버려두었습니다. 모두 관작을 추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셨다. 이광좌와 조태억은 시율(施律)이 지나치게 많다 하여 따르지 않으셨고, 정해·권익관은 헌부(憲府)에서 아킴에 따라 추탈하셨다.

명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는 복두(幘頭)·난삼 차림으로 방방(放榜)하게 하고 드디어 정제(定制)로 삼으셨다. 이에 앞서 왕께서 중국 진사과(進士科)의 복두·난삼·대련화(戴蓮花)·문희연(聞喜宴)등의 제도를 회복하셨으나 난삼은 그 복식을 몰랐다. 그런데 연신(筵臣)이 말하기를,◆◆◆◆◆고(故) 이조 참판(吏曹參判) 김늑(金勒)이 명나라 신종(神宗) 때에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갔을 때 황제가 복두·난삼과 《대학연의(大學衍義)》 1부(部)를 내려 주자, 김늑이 돌아와서 복두와 난삼을 안동(安東)의 학사(學舍)에 보관하였는데, 《대학연의》에는 어보(御寶)와 진적(眞蹟)이 있다고 이제 병조 정랑(兵曹正郎) 권만(權萬)이 말합니다.◆◆◆◆◆하였다. 왕께서 말씀하기를,

◆◆◆◆◆권만은 충정공(忠定公) 권발(權撥)의 후손이 아닌가? 예전에 우리 중묘(中廟)께서 재추(宰樞)와 함께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상화연(賞花宴)을 하셨는데, 파하고 나서 내시(內侍)가 수진(袖珍) 《근사록(近思錄)》을 주워 중묘께 바치니, 중묘께서 하교하기를,

◆◆◆◆◆이것은 권발의 수중물(袖中物)일 것이다.◆◆◆◆◆하고 명하여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천년에 한번 있을 만한 드문 성사(盛事)이다. 아! 정원(政院)은 영남 감영(嶺南監營)에 공문을 보내어 두 서책과 의관(衣冠)을 두 신하의 후손을 시켜 가지고 오게 하라.◆◆◆◆◆하셨다. 이때에 이르러 권만과 김늑의 손자 김홍운(金弘運)이 가지고 왔는데, 이때 왕께서 편찮으셨으나 굳이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아 두사람을 소견(召見)하고 말씀하기를,

◆◆◆◆◆유학(儒學)하는 선비를 대접할 때에는 한 고조(韓高祖)가 양다리를 뺀고 앉은 것을 본떠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명나라의 옛 물건은 더욱이 존경해야 할 것임에랴? 하셨다. 드디어 명하여 《삼경(三經)》과 《근사록》·《대학연의》를 내리게 하고 유사(攸司)에 신칙하여 복두·난삼은 그 복식을 알아보고 김홍운에게 돌려주게 하셨다. 그래서 생원·진사의 의관은 죄다 명나라의 제도를 회복하였으나, 대련화·문희연은 의논이 같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동10월(冬十月)에 제주(濟州)에서 지실(枳實)을 바쳤는데, 왕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듣건대, 관에서 탕자나무를 세어 백성에게 그 열매를 내라고 요구하므로 백성이 흑 나무를 흔들어 절로 말라 죽게 한다하니, 어찌 딱하지 않은가? 제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바치지 말게 하라.◆◆◆◆◆하셨다.

11월에 왕께서 하교하기를,

◆◆◆◆◆친경(親耕)·관예(觀刈)는 다 사전(祀典)을 중하게 여기기 위한 것인데, 임금이 갈고 백성이 거두는 것과 백성이 농사짓고 임금이 베는 것은 다 불편하다. 기성(箕城)의 정전(井田)은 복고(復古)하기 어려우나, 이 기회에 왕성(王城) 동쪽의 적전(籍田)을 유제(遺制)를 본떠 정형(井形)으로 만들고 공전(公田)의 하나에서 거두어 제물(祭物)로 바치고 그 나머지 여덟 구역은 죄다 그 세(稅)를 면제하면,◆◆◆◆◆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내리고 드디어 우리 사전(私田)에도 미친다.◆◆◆◆◆는 시(詩)가 천년 뒤에 다시 읊어질 수 있을 것이다. 태상(太常)을 시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아뢰게 하라.◆◆◆◆◆하셨다.

12월에 명하여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정분(鄭汾) 등의 벼슬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숙묘(肅廟)께서 육신(六臣)의 벼슬을 회복시키신 일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23년 정묘(丁卯) 춘정월(春正月)에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존호(尊號)를 강성(康聖)이라 올리고 왕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바치고 진하(陳賀)하셨는데, 대비의 주갑(周甲)이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태묘(太廟)에서 쓰는 비단은 무늬가 없는데 내 의장(儀仗)에는 오히려 무늬가 있으니, 어찌 불면(佛冕)을 아름답게 하는 뜻이겠는가? 홍양산(紅涼傘)은 무늬를 없애고 일산(日傘)은 명주로 하고 그 밖의 의장도 이를 본뜨라.◆◆◆◆◆하셨다.

3월에 왕께서 연신(筵臣)에게 말씀하기를,◆◆◆◆◆동조(東朝)께서 우연히 집상전(集祥殿)의 구장(舊藏)을 찾다가 한 옥대(玉帶)를 얻어 내게 주셨다. 곧 선묘(宣廟)께서 두르시던 것이고 숙묘 올해년에 이 띠를 두르시고 조참(朝參)을 행하셨는데, 이제 문득 얻었으니 기이하다.◆◆◆◆◆하셨다.

이튿날 드디어 옛 옥대를 두르시고 선원전(璿源殿)에서 분향(焚香)하고 이해 가을에도 이 띠를 두르시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시사(試士)하셨다.

이달에 왕께서 금원(禁苑)의 관풍각(觀豐閣)에 나아가 벼심기를 보고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쓰는 것과 같다. 재주가 말길 만하더라도 참설(讒說)로 이간하면 마른 땅에 벼를 심고 추수가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충직한 말이 있더라도 받아 들여지지 못하면 노숙한 농부를 멀리하여 버려두고 자기 지혜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학문하는 것과 같다. 강학(講學)하지 않는 것이 아닐지라도 때때로 사이가 끊어지면 논밭에 물 대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하셨다.

다시 하교하여 무격(巫覡)·음사(淫祀)를 금하고 말씀하기를,

◆◆◆◆◆태학(太學)에 예전에 이목(李穆)이 있었거니와, 내 이목(耳目)에도 이 목 같은 자가 있는가?◆◆◆◆◆하고, 경조(京兆)·오부(五部)에 신칙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무리는 법조(法曹)에 보내어 형벌을 주게 하셨다.

추7월(秋七月)에 왕께서 경연(經筵)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말씀하기를,◆◆◆◆◆내가 늘 당현종(唐 玄宗)처럼 초년과 만년이 아주 달라질세라 염려한다. 겨울에는 피는 꽃이 늦도록 향기를 피우더라도 때때로 시들면 마침내 연꽃이 진흙에서 나와도 물들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하셨다.

곧 일 때문에 말씀이 자못 불평하셨는데, 이윽고 누우치고 말씀하기를,◆◆◆◆◆《자성편(自省編)》이 완성 되었을 때에 내가 신하들에게 경계하여 이 편으로 규면(規勉)하게 하였고 당시에 교정(校正)한 자와 편차(編次)한 자도 지금 경연에 있는데 한 사람도 감히 간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본디 내가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또한 어찌 서로 권면할 도리가 없겠는가? 모두 문비(問備)하라.◆◆◆◆◆하셨다.

이에 앞서 국릉(國陵)으로 봉표(封標)한 땅에 매장하지 않은 것은 매장을 금하고 이미 매장한 것은 옳기되 사대부가 이미 매장한 것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때에 이르러 승지(承旨)가 아뢰기를,

◆◆◆◆◆봉표한 곳이 여든인데 사대부가 범장(犯葬)한 곳이 이미 서른이나 됩니다. 국조(國祚)가 길어서 장차 몇백대가 될는지 모르니, 여든 곳도 오히려 적은데, 더구나 쉰 곳이겠습니까? 사대부가 범장한 것도 옳기는 것이 온당하겠습니까.◆◆◆◆◆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한 광무(漢 光武)는 스스로 해를 넘길는지 어찌 알겠느냐고 하였으나 향국(享國)이 오래 이어졌고, 진 시황(秦始皇)은 반드시 만세토록 전하려 하였으나 2세(世)에서 드디어 망하였다. 국조가 길고 짧은 것은 오직 백성을 보전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명산(名山)이 많고 적은 것을 말하겠는가?

참으로 쉰 곳을 죄다 쓴다면 또한 이미 많거니와, 어찌 반드시 그 봉표를 넓혀서 해가 백골(白骨)에 미치게 해야 하겠는가?◆◆◆◆◆하셨다.

이 때 음동추(蔭同樞)인 자도 초헌(輶軒)을 탈 수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기를,

◆◆◆◆◆번영(繁纓)은 작은 물건인데도 부자(夫子)가 아꼈거니와, 조정의 등위(等威)가 문란해서는 안 되니, 경조(京兆)의 아윤(亞尹)이나 동돈녕(同敦寧)을 지낸 자가 아니면 초헌을 타지 못하게 하고 항령(恒令)으로 삼으라.◆◆◆◆◆하셨다.

8월에 음옥(淫獄)이 있었는데, 왕께서 하교하기를,

◆◆◆◆◆주남(周南)의 교화는 강한(江漢)에 미쳤고 선정(先正) 조광조(趙光祖)가 도헌(都憲)이었을 때에는 남녀가 길을 달리 하였는데, 내가 임어(臨御)하여서는 교화하지 못하여 음풍(淫風)

이 방자하게 행해지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학교의 정사(政事)가 폐기되어 《소학(小學)》의 가르침이 해이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태학(太學)·사학(四學)과 외방(外方)의 향교(鄕校)·서원(書院)은 다 《소학》을 강습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고 교관(敎官)이 동몽(童蒙)을 가르치고 수령(守令)이 백성을 가르칠 때에도 반드시 《소학》의 도리로 하라.◆◆◆◆◆하셨다.

이 때에 왕께서 춘추가 높으므로 지기(志氣)가 쇠퇴하고 정사가 게을러질세라 염려하여 더욱 분려(奮勵)하여 다스리시고, 또 못 신하가 성심(聖心)이 향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데에 힘썼다. 하교하기를,

◆◆◆◆◆선유(先儒)는 한 문제(漢文帝)가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을 바꾸지 못한 것을 비평하였으나, 사람마다 전장(典章)을 가며이 의논한다면 한 가지 일은 경장(更張)되고 온갖 폐단이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다.

아! 조정의 신하들은 내가 분려하는 것은 다만 구장(舊章)을 수거(修擧)하려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하셨다.

9월에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을 보내어 고려의 왕릉(王陵)을 두루 살펴 무너진 것은 수리하고 범경(犯耕)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명하여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벼슬을 회복시키셨는데,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의 전례와 같이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법에 대왕(大王)의 적손(嫡孫)은 대(代)를 한정하지 않고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지 않게 하였으며, 지손(支孫)은 9대에 한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종(景宗) 임인년에 조정에서 그 댓수를 줄일 것을 의논하였다.

왕께서 즉위하시기에 이르러 명하여 한결같이 구전(舊典)을 따르게 하셨으나,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정(講定)한 영식(令式)에 이르기를,

◆◆◆◆◆댓수를 한정하는 가운데 조금 사대부 모양이 있는 자는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께서 비로소 이를 듣고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지금 신하들이 현직(顯職)에 올라 조정에서 벼슬하면 그 선대의 적손도 수령(守令)인 자가 감히 군역에 충정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대왕의 적손을 어찌 사대부 모양이 있고 없는 것으로 취사(取捨)할 수 있겠는가? 매우 부당하다.◆◆◆◆◆하고, 종부시(宗簿司)를 시켜 외방(外方)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하게 하고 빨리 이 한 구(句)를 없애게 하셨다.

동10월(冬十月)에 왕께서 하교하기를,

◆◆◆◆◆《예기》에 형벌은 대부(大夫)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하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금달(禁闈)에서 시종(侍從)하다가 저녁에 영어(囹圄)에서 결장(決杖)당하니, 예(禮)로 부리는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는 장오(贓汚)에 관계되는 것 밖에는 무릇 시종에 대한 평결을 의논할 때에 장률(杖律)은 속형(贖刑)으로 논하라.◆◆◆◆◆하셨다.

24년 무진(戊辰) 춘정월(春正月)에 명하여 무신(武臣)을 전강(殿講)할 때에는 병서(兵書)로 하

고 그 연한(年限)·강규(講規)는 모두 문신 전강의 예(例)대로 하고 항령(恒令)으로 삼게 하셨다.

2월에 숙종(肅宗)의 진용(眞容)을 다시 그려 왕께서 친히 영희전(永禧殿)에 모셨다. 돌아오다가 경희궁(慶熙宮)의 경현당(景賢堂)에 이르러 일을 감독하는 신하들을 불러 제사에 쓰고 난 음식을 내리고 헌가(軒架)를 연주하여 위로하였으며, 친히 사(辭)를 만들어 태강(太康)을 경계하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화답(和答)하게 하시고 한밤에야 파하였다. 이튿날 입직(入直)한 유신(儒臣) 김상철(金尙喆)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아조(我朝)의 음악을 쓰는 절도는 조하(朝霞)·진연(進宴)이 아니면 궁정(宮庭)에서 거행한 적이 없습니다.◆◆◆◆◆하니, 왕께서 손수 써서 비답(批答)을 내리고 말을 내려 장려하셨다.

하5월(夏五月)에 명하여 광화문(光化門)의 구종(舊鐘)에 각(閣)을 짓게 하셨는데, 세조(世祖)의 봉호(封號)가 있기 때문이다.

추8월(秋八月)에 왜(倭)가 바친 증주(繒紬)·채릉(彩綾) 7백여 필을 호조(戶曹)·삼군문(三軍門)·경기감영(京畿監營)과 시전(市典) 백성에게 나누어 내리셨다.

동11월(冬十一月)에 용비(冗費)를 줄이셨다.

25년 기사(己巳) 춘2월(春二月)에 명하여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찬집(纂輯)하게 하셨다. 하4월(夏四月)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의종 황제(毅宗皇帝)를 대보단(大報壇)에 아울러 향사(享祀)하였다.

이에 앞서 숙종(肅宗) 갑신년에 북원(北苑)에 제단을 쌓고 신종황제(神宗皇帝)를 제사하여 임진년에 재조(再造)하여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왕께서 《명사(明史)》를 보시니,◆◆◆◆◆송정(崇禎) 병자년 정월에 의종 황제가, 우리 나라가 포위당하여 원조를 청하니 총병(摠兵) 진홍범(陳洪範)에게 명하여 각진(各鎭)의 주사(舟師)를 징발하여 구원하러 가게 하였다.

이해 3월에 산동 순무(山東巡撫) 안계조(顏繼祖)가 아뢰기를,

「조선이 이미 지키지 못하여 피도(皮島)·철산(鐵山)도 위태로우니 진홍범과 심세미(沈世魁)가 있는 두 진(鎭)에 신칙하여 피도를 굳게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안계조에게 협력하여 바로 잡도록 피하지 못하였다 하여 매우 꾸짖었다.◆◆◆◆◆하였다.

왕께서 그래서 느껴 울고 말씀하기를,

◆◆◆◆◆정사(正史)가 선조(先朝) 갑신년에 나왔으면 의종 황제도 아울러 제사하였을 것은 틀림없다. 또 더구나 우리 동방의 봉전(封典)·국호(國號)는 다 고황제가 내려 준 것으로서 예우(禮遇)가 융숭함이 전대(前代)보다 훨씬 더함에 있어서라?◆◆◆◆◆세 황제를 아울러 제사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숭보(崇報)하는 예(禮)로도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빨리 거행하게 하셨다. 왕께서 친히 향사(享祀)하셨는데, 바야흐로 울창(鬱蒼)을 부어 제사를 시작할 때에 흰 구름 한 줄기가 북쪽에서 일어나 굽틀굽틀 제단 위에 머무르고 바람이 솔솔 불어 영우



불편하다 하니, 드디어 명하여 그 상을 와룡사(臥龍祠)에 배향(配享)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생원(生員)·진사(進士)를 물색하는 규례를 폐지하였다. 이에 앞서 생원·진사의 회시(會試)에서 탁명(擿名)할 때에는 고관(考官)들이 먼저 합격한 봉미(封彌)를 보고 그 중에서 문벌과 문망(文望)이 있는 자를 가려서 뽑아 장원(壯元)에 놓고 생원의 셋째와 진사의 여섯째는 세상에서 말하기를,◆◆◆◆◆이 차서에 있는 자는 명이 없어 일찍 죽는다.◆◆◆◆◆하므로 또 시골의 천한 선비를 가려서 채웠다.

이때에 이르러 왕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공(公)인가 사(私)인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가 이러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 영구히 폐지하고 범하는 자는 용정률(用情律)로 논하라.◆◆◆◆◆하셨다.

추7월(秋七月)에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였다. 처음에 숙종(肅宗)께서 양역(良役)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여러번 못 신하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의논하게 하셨으나, 호포(戶布)·결포(結布)·유포(流布)·정전(丁錢)등 갖가지 의논을 서로 고집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왕께서 즉위 하시고서 양역청(良役廳)을 두고 당상(堂上) 두서너 사람을 가려서 맡겨 정신을 쏟아 강구하게 하셨으나 좋은 방안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폐지하였다.

이해 4월에 왕께서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 오부(五部)의 사서(士庶)를 불러 묻기를,

◆◆◆◆◆백성의 폐단 중에 양역의 폐단이 크니, 일찍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될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성고(聖考)께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셨으나 못 신하가 마침내 덕음(德音)을 받들지 못하였으니, 내가 매우 개탄하여 병을 건디고 임문(臨門)하였다. 유포(流布)·구전(口錢)은 그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있거니와, 호포·결포는 어느 것이 편리하고 어느 것이 불편한가? 이 밖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셨는데, 사서(士庶)가 대답하기를,

◆◆◆◆◆호포가 편리합니다.◆◆◆◆◆하고 결포가 편리하다고 한자도 열 중에서 두셋 있었다. 왕께서 못 신하에게 물으셨는데, 호조 판서(戶曹判書) 박문수(朴文秀)가 대답하기를,◆◆◆◆호포는 경비(經費)의 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 호전(戶錢)이라야 합니다. 대호(大戶)는 1백문(文)으로 하고 중호(中戶)는 50문으로 하고 소호(小戶)는 30문으로 하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왕께서 말씀하기를,

◆◆◆◆◆야! 잔단 것은 나라의 체모가 아니다.◆◆◆◆◆하매, 박문수가 말하기를,◆◆◆◆신은 쓸데없는 고을을 없애서 경비에 보태려 하였으나 전하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신하들도 어렵게 여기므로 그 차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호포를 근본으로 세우고 모자라는 것은 어염(魚鹽)으로 채우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호포는 결포만 못합니다. 결포는 전조(田租)와 아울러 세(稅)를 내므로 관에서 거두기 쉽고 백성이 소요하지 않습니다.◆◆◆◆◆하였으나, 왕께서는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고

비국 당상(備局堂上)들에게 명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직숙(直宿)하면서 편의한 것을 강정(講定)하게 하셨으나 달이 지나도 좋은 방책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조현명(趙顯命)이 홍계희(洪啓禧)가 세운 균역의 방책을 아뢰니, 왕께서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다가 마침내 그 말을 따라서 국중(國中)의 양역(良役) 1필(匹) 죄다 면제하고 따로 균역청(均役廳)을 두어 어염·결전(結錢)·선무포(選武布) 등의 세를 전관(專管)하게 하였다.

또 저치 상정미(儲置常定米)와 외읍(外邑)의 은여결(隱餘結)을 보태어 경비를 채우고 균세사(均稅使)를 팔도에 보내어 어염세(漁鹽稅)를 바로잡고 은여결을 살펴 내게 하고 드디어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신칙하여 이 뒤로는 변경(變更)을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년에 이르러 왕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균역의 논의를 창도한 자의 자손이 번창한 뒤에야 균역이 실효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셨다.

9월에 왕께서 문묘(文廟)에 거둥하여 작헌(酌獻)하고 시사(試士)하셨다. 곧 온양(溫陽)의 온천에 거둥하셨는데, 환후를 목욕하여 요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는 길에 있는 유현(儒賢)·명상(名相)·충절인(忠節人)의 묘에 다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셨다. 도과(道科)를 설행(設行)하여 선비를 뽑고 호서(湖西) 백성의 조세를 감면하시고 드디어 회란(回瀾)하였다.

【원전】 44집 54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 조 실 록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정조 19년/04월/18일(무술) / 경모궁을 참배하고 온양 행궁에 심은 회나무의 축대공사와 관련하여 하교하다》

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고 하교하였다.

◆◆◆◆◆◆옛날 경진년 7월에 온양(溫陽) 행궁에 행행(幸行)하셨을 때 서쪽 담장 안에서 표적을 정해 활쏘기를 한 뒤 품(品)자 형태로 세 그루의 회나무를 심어 뒷날 그늘을 드리우게 하라고 명하셨었는데, 지금 36년이 지나는 동안에 뿌리가 서리고 줄기가 뻗어 뜰에 온통 그늘이 지게 되었다. 이에 그 고을 수령이 도백(道伯)과 수신(帥臣)에게 말하여 그 나무 둘레에 축대를 쌓

아 보호하게 하였다 한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올해 영흥(永興) 본궁(本宮)의 경사스러운 의식을 위하여 비궁에 가서 재숙(齋宿)하고 환궁한 날이다. 그런데 이날 이런 말을 들은 것 또한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처창(悽愴)하고 감동되는 마음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다. 이미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날을 넘길 수가 있겠는가. 축대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는데 사적(事蹟)도 본읍(本邑)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 당시의 도신(道臣)·수령 및 분부를 받들고 나무를 심은 사람의 성명을 조목별로 장계를 올리도록 충청 감사에게 하유하라. 또 삼가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축대 옆에 쌓아야 할 것이니, 이 뜻도 아울러 알려 주도록 하라.◆◆◆◆◆

【원전】 46집 571면

【분류】 \*왕실(王室)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정조 19년/10월/28일(을사) / 온양궁 행궁의 영괴대에 어제비를 세다》

온양군(溫陽郡) 행궁(行宮)의 영괴대(靈槐臺)에 어제비(御製碑)를 세웠다.

【원전】 46집 609면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Copyright ©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정조 20년/03월/14일(경신) / 경진년 온천 행행시 배종한 이들에게 가자 또는 상을 내리다》

명하여 경진년 온천(溫泉) 행행 때 행차를 따랐던 군교(軍校)와 액속(掖屬)에게 가자하고 차등 있게 쌀을 내리도록 하였다. 궁인(宮人)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 얼마 후 또 명하여 배종관(陪從官) 전 현감 권성웅을 둔령부 도정으로 올려 제수하고, 온양군에서 일을 감독한 이교(吏校) 등에게도 각기 한 자급씩을 올려주도록 하였다.

【원전】 46집 636면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정조 대왕 행장(行狀)】

18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인정전에 나아가 자전의 오순(五旬)과 자궁의 육순(六順)을 축하하고 이어 조관은 70세 이상, 사서인은 80세 이상 자와 80이 못 되었어도 부부가 해로하고 있는 자는 모두 1계(階)씩 올려주도록 명했는데 도합 7만 5천 1백 45명이나 되었다.

현릉원을 배알하고 돌아와 또 경모궁을 배알했는데, 바로 장헌 세자(莊獻世子) 탄신이었다. 그 해 그날은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궁(宮)과 원(園)을 연거푸 배알하고 도에 지나치도록 슬퍼했는데 제신들의 강력한 청에 의하여 그 이튿날에야 비로소 환궁했다.

삼경(三經)·사서(四書)를 새로 인쇄하여 관각(館閣)·사고(史庫)·태학(太學)에 각기 나누어 두게 하고 또 주합루(宙合樓)에다도 두도록 명하고는 각신에게 이르기를,

◆◆◆◆◆잘 지키도록 하라. 옛날 영릉(寧陵)에다는 《심경(心經)》을 순장했었고 병신년 산릉(山陵) 때는 《소학(小學)》을 순장 했었는데 나도 장차 그대로 따르리라.◆◆◆◆◆

하였다.

5월에 재거(齋居)하면서 율음을 내리기를,

◆◆◆◆◆탕(湯)은 간하는 말이면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덕이 있었고, 순(舜)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넓은 도량이 있어 천고를 두고 헤아려봐도 오직 그 두 성인(聖人)이 있었을 분이다. 아, 지금도 기억 하거니와 몇 번이고 자꾸 하시던 그 말씀이 꼭 어젯밤에 들은 듯하다. 늘 말씀하시기를◆◆◆◆◆내가 허물이 있거나 없거나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다. 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치게 들추어 내더라도 나는 그를 개의치 않겠다.◆◆◆◆◆하고는 그 말을 대전 벽에다 써 걸어두시고 문호를 활짝 열으셨으니 그 도량의 크이야 말로 바로 하늘과 땅 그것이었다. 그런데 조정 신료들은 나삼(羅蓼)에 관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리도 크고 넓으신 도량에 대해 찬양을 하려고 하였으니 그는 표주박 하나로 바다를 헤아리려는 격이다.

아, 경진·신사 두해에 있었던 일들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진신(縉紳)·장보(章甫)들이 바르고 극한적인 간언을 많이 하였으나 한 사람에게도 죄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비답까지 하셨다. 경연 석상에서 무언가 아뢰는 자가 있었을 때도 이르시기를◆◆◆◆◆남의 신하라면 당연히 서지수(徐志修) 같이 청대하여 면전에서 사실을 아뢰는 것이 옳은 일이다.◆◆◆◆◆하고 그에게 전석(田錫)이 초고 불태운 것은 잘못이며 주창(周昌)처럼 대들면서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그가 최후에 한 말 한마디는 듣기 매우 거북한 망언이었지만 내 그에게 죄를 내리지 않았다.◆◆◆◆◆하였다. 그 때 그 연신(筵臣)은 황공한 마음에 땀을 흘리며 물러가 그 사실을 그의 가승(家乘)에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 후 선왕은 또 곧 구언(求言)의 성지를 내려 그로 하여금 할말을 다 하

도록 하였다.

나 소자(小子)가 어찌 감히 그것을 띠에다 쓰고 폐부에 새겨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재작년에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는 상소는 그 내용이 공적으로 공분(公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적으로 개인 감정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는가? 거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사(私)가 끼어 있었다면 그 짓을 차마 하는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깨끗이 맑은 하늘에 무지개를 드리우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심통이란 말인가. 재계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앉아서 아침이 되도록까지 촛불을 밝히고 눈물을 섞어가며 여기에 내 속마음을 쏟아놓았는데 행여 이 기록이 아름다운 성덕을 드러내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 소자로서도 장차 지하에 돌아가 뵈올 면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찌 내년 봄 옥책(玉冊)에다 빛나는 호를 올릴 때의 의문(儀文)에다 비할 것인가.◆◆◆◆◆

하였다.

오래 가물어 기우제를 올리고 하교하기를,

◆◆◆◆◆아래로 정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향양(恒陽)의 허물이 되어 그 징험이 가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 언로(言路)가 막혀 있는 것이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대 무릇 논사(論思) 언책(言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다 말하여 내 마음의 선한 단서를 확충시키도록 하라. 말이란 꼭 적절해야지만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고,◆◆◆◆◆몽둥이 하나로 치면 한 줄기 몽둥이 자국이 나고, 손바닥으로 후려치면 손바닥만큼 붉은 자국이 남는다.◆◆◆◆◆하는 구절을 삼사와 제신이 듣게 외워주었다.

가을에는 왕이 앓고 있는 부스럼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게다가 또 가뭄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왕은 걱정이 되어 대신, 육경과 비변사 제신들을 묘당에 모이게 하여 가뭄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게 했으며 중외에 명하여 널리 직언(直言)을 구했고, 또 삼남(三南) 도신들에게 유시를 내려 숨어 있는 인재 발굴과 함께 억울한 사정이 있는가도 살피게 하였다.

명릉(明陵)을 배알했다. 《인서록(人瑞錄)》이 만들어졌다. 왕이 그 해에 큰 경사가 있었다 하여 자전과 자궁에게 하례를 올리고 중외에 많은 은총을 내린 다음 육경(六卿) 이상의 기로신을 불러 그 의의와 범례를 지정해주고는 그에 따라 경외의 은총 입은 노인들을 차례를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라고 하고 이름을 《인서록》이라 하여 오래오래 전해지도록 인쇄 반포하게 하였다.

겨울에는 화성(華城)의 성 쌓던 일을 정지시켰다. 계축년부터 쌓기 시작하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6도에 기근이 들자 왕은 누차 공사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제신들 주장은, 성 쌓는 일이 재정을 축내는 일도 아니고 백성을 병들게 만드는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하교하기를,

◆◆◆◆◆성을 쌓는 것도 소중함을 위해서이며 정지시키는 것도 역시 소중함을 위해서인 것이다. 지금 삼남과 경기 지역이 가을을 맞고서도 밭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고 서북 지방 역시어려운 실정이어서 자전과 자궁에 올리던 것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성 쌓는 일이 아무리 중하다지만 같은 중한 것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를 안 할 것인가.

한 나라의 재화(財貨)는 일정한 양이 있어서 농사지를 백성들의 해를 이어갈 양식 아니면 기민을 먹힐 호구할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너희들 농사와 기민 먹이는 일 다 놔두고 우리 성 쌓는 일에만 종사하라.◆◆◆◆◆한다면 그것이 사리에 닿을 일인가.

혹자는 말하기를, 흉년에 토목 공사를 하면 오히려 주휫(賑恤)까지 겸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서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했던 일과 범희문(范希文)이 절서(浙西)에서 한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개 군이나 일개 진(鎭)에서 시행할 정책일 뿐이지 나라 한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나라 전체의 백성이 모두 내 적자(赤子)들인데 그 수많은 부황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도 장사도 말고 오직 성 하나 쌓는 곳에 붙어서 일하고 먹으라고 한다면 살린대야 몇 사람이나 살리겠는가. 지금 해야 할 일로서는 모든 정신을 구황 정책 그 한 일에만 집중시켜야 한다.◆◆◆

◆◆◆

하고, 이어 화성부에 윤음을 내려 그 역사를 정지하게 하였다가 을묘년에 가서야 성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각 지방에 큰 기근이 들고 삼남(三南)은 더했는데 왕은 각신과 승지들을 나누어 보내 위로의 윤음을 내리고 배에다 곡식을 싣고 가 탐라(耽羅) 백성들을 먹이게 하였다. 왕은 탐라가 먼 바다 속에 있는 땅이라 하여 더욱 먼 곳을 회유하는 생각으로 흉년 소식만 들으면 언제나 다른 지방에 우선해서 진휫하였고 배가 갈 때는 반드시 제문(祭文)을 친히 지어 해신(海神)에 제사하도록 하였다.

《주서백선(朱書百選)》이 만들어졌다. 왕이 주자서(朱子書)를 가장 좋아하여 《어류(語類)》와 《대전(大全)》에서 뽑아 《선통(選統)》·《회영(會英)》·《회선(會選)》 등의 책을 만들고 또 서독(書牘)에서 뽑아 묶어 《백선(百選)》을 만들어 활자로 간행하였다.

19년 봄에 정순 대비·경모궁·혜경궁에 존호를 더 올리고 즉위 20년의 하례를 받았다. 문관은 시종(侍從) 이상, 무관은 곤수 이상, 음관은 준직(準職)이상으로 나이 61세인 사람에게는 모두 1급씩 가자(加資)했는데 그해의 은총을 나누기 위한 뜻인 동시에 작상(爵賞)이 너무 함부로 내려지는 것도 고려해서였다. 자전·자궁을 모시고 경모궁에 예를 행하면서 곤전(坤殿)에서도 함께 참여했는데 그 날이 바로 장헌 세자의 환갑이었기 때문이다. 윤2월에는 자궁을 모시고 화성(華城)에 행행하여 현릉원을 배알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화성에 들러 성 내의 군사 훈련과 야간 훈련을 사열하고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자궁께 찬(饌)을 올리면서 칠작례(七爵禮)를 행하고 이어 신평루(新豐樓)로 옮겨 본부(本府)의 사민(四民)에게는 쌀을 내리고 기민들에게는 죽을 내렸다. 그

리고 낙남헌(洛南軒)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는데 못 노인들이 잔을 올려 수를 빌었다. 그리고 원(園) 밑에 사는 백성들은 복호 2년, 화성 백성들은 복호 1년씩을 명하였다. 능원(陵園) 행행 때면 탁지부 신하가 정리사(整理使)가 되는 것이 옛날부터의 조례였는데 그 해부터는 원에 행행 때 안팎으로 정리사를 두어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고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3백 주현(州縣)에다 나누어 보관해 두고 이름하여 정리곡(整理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거나 나누어 주는 데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또 제주도의 진흙할 물자로 보태기도 하여 사랑의 은총이 미치는 범위를 넓히기도 하였다. 화성의 성묘(聖廟)를 배알하고 교궁(校宮)에다 경서(經書)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정동준(鄭東逵)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동준이 시종관으로 있던 시절부터 상의 후한 사랑을 받아 벼슬이 이경(貳卿)에까지 이르렀는데 왕명을 사칭하고 성상을 속이면서 그의 마음과 하는 것이 괴상 망측하였다. 그리하여 언자(言者)가, 그의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청했었는데 동준은 그 후 곧 자살하고 말았다.

그런데 조참(朝參) 때 그의 고신(告身)을 거두어 불태워 버리라고 명하고 이어 일대 출척(黜陟)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어필로 된 성적비(聖蹟碑)를 정주(定州)의 달천에다 세웠는데 태조(太祖)가 개선한 자리이고 선묘(宣廟)가 주필(駐蹕)했던 곳이다.

선희궁(宣禧宮)을 배알하고 세심대(洗心臺)에 나아가 제신들에게 술을 내렸다. 왕이 이르기를,  
◆◆◆◆◆해마다 이때면 내가 꼭 이 대에 오는 것은 여가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경모궁(景慕宮)을 처음 세울 때 정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옛 을묘년 나라 경사 때 고 중신 박문수(朴文秀)가 여러 경재(卿宰)들과 필운대(彌雲臺)에 모여 기쁨과 축의를 표했었는데 그때 영성군(靈城君)의 시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는 운대가 바로 이곳이다. 금년 역시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니 경들도 전인(前人)들이 했던 것처럼 이 태평 연월을 한번 빛나게 장식해보게나.◆◆◆  
◆◆◆

하였다.  
내원(內苑)에서 꽃구경하고 고기잡고 하다가 존덕정(尊德亭)으로 가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옛부터 내원 놀이에는 척리(戚里)가 아니고 참여하지 못했었다. 외신(外臣)으로서 내연(內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별한 대우인 것이다. 옛날 인조가 계해년 반정 이후로 훈신(勳臣)들을 융숭히 대우하여 이러한 잔치에서 모시고 놀게 하면서 마치 한식구처럼 대했었는데, 효종은 즉위 초부터 훈귀(勳貴)의 폐단을 완전히 없애고 사림(士林)들을 초대해 두고는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여 마치 어수(魚水)요 천향(天香)이었으니, 지금까지도 송 문정공(宋文正公)이 등대(登對)했던 고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또 조정에 분열이 생겨 숙종조부터 선왕조까지는 부득이 또 척리들과 밀착하지 않을 수 없어 금중 출입이 외조(外朝)에 비할 바 아니었는데 그것은 시기와 형편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춘저(春邸)에 있을 때부터 현자를 가까이하고

척리는 멀리해야 하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즉위 초기에 맨 먼저 내각(內閣)부터 세웠었는데 그것은 문치(文治)를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아침 저녁 좌우에다 두고 그들로부터 계옥(啓沃) 헌납(獻納)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좋은 벼슬을 주어 기반을 굳혀주고 남다른 예로 대우도 하며 심지어는 잔치에서 꽃구경 낚시놀이까지도 꼭 내각 신료들과 함께 해 왔었다. 아울러 그들의 자질(子姪) 형제까지도 모두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번거로운 예는 생략하고 오직 사랑으로 대해 자리 전체가 즐거움에 빠져 해마다 거의 상례로 되풀이 해왔으니 임금 신하 사이의 간격 없는 만남이라든지 그 영광 그 은총이야말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신하로서 그러한 기회를 얻기란 극히 어려웠으리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근일에 와서 귀근(貴近)의 폐단이 극에 이르고 말았다. 전진이 있으면 후퇴가 있고 이완이 있으면 긴장이 있는 것이 이치이니 이 뒤를 이어 척리가 슬슬 나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사대부(士大夫)를 친근히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타고난 성품이고 또 마음씨 해 온 터다. 몇 십년 그래오던 것을 지금 중도에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자리에 오른 제신들은 모름지기 각자 자신을 깨추치는 마음으로 오늘의 내 이 말을 잊지 말라.◆◆◆◆◆

하였다.

어제로 된 영괴대비(靈槐臺碑)를 온양(溫陽)의 행궁(行宮)에다 세웠는데 바로 경모궁(景慕宮)이 경진년 온천에 갔을 때 화나무 세 그루를 직접 심어둔 곳이었다.

여름에 환조 대왕(桓祖大王)과 의혜 왕후(懿惠王后)를 영흥(永興) 본궁(本宮)에다 올려 모셨다. 그보다 앞서 그해가 환조(桓祖)의 탄생 팔회갑(八回甲)이라 하여 대신을 함흥(咸興)으로 보내 본궁에다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게 했는데 그를 계기로 함흥 유생들이 소를 올려, 영흥 본궁에 옛 전사청(典祀廳) 자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제향(祭享)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 진전(眞殿)을 배알하고 이어 이문원(理文院)에 나아가 대신 이하 제신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가 정례(情禮)에 맞는 일이라고 대답 하였으므로 대신과 예관을 보내 고례(古禮)에 따라 본궁에다 위판(位版)을 만들고 길일(吉日)을 정해 올려 모시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 풍패루(豊沛樓)에다 양로연(養老宴)을 베풀도록 명했다.

두 본궁의 의식(儀式)이 만들어졌다. 건국 초기에 경도(京都)에는 계성전(啓聖殿)이 있고 함흥 영흥에는 본궁이 있었는데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위판을 모셔둔 곳으로서 원묘(原廟) 제도를 써왔다. 그리고 종전에는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전사관을 별도로 차출하여 제사를 모시고 했던 것인데 예조 판서와 봉상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옛 법을 어기고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 많았으므로 왕이 그 의식 절차를 바로잡도록 특명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술독 술잔등도 새것으로 바꾸고 해마다 의폐(衣幣) 향축(香祝)을 봉하여 반드시 하루 전부터 재계하고 직접 그 일에 임하게 해왔던 것인데 환조를 올려모신 예를 마치고는 각신(閣臣)을 명하여 그 의식을 만들어 인쇄하여 본궁에다 두도록 하였다.

6월 정유일에 자궁에 찬을 올리고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61세인 자에게는 궁전 뜰에서 술을

내렸으며,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 사민(四民)에게 쌀을 하사하고, 각도에 윤음을 내려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실시하라 하였다.

가을에는 조적을 무제로 책문(策問)을 내어 태학생과 여러 음관으로 하여금 조목별로 대책을 쓰게 하였다. 연신에게 말하기를,

◆◆◆◆◆ 조적은 바로 사창(社倉) 제도의 후신으로서 모곡(耗穀)이래야 쥐가 먹고 새가 먹어 축난 것에 불과한데 도신(道臣) 수령(守令)이 그 모곡을 받아 관용(官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벌써 정당한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조정에서 그걸 가져다 쓰면서 마치 정당한 법에 의한 것처럼 한다면 그 얼마나 구차한 일이겠는가. 더더구나 분류(分溜)가 갈수록 정확하지 못하여 산간 연해 지방이 모두 병이 들고 경외의 각 아문에는 이것저것 문서만 많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이용하여 농간을 뿌리니 피해받는 쪽은 백성들인 것이다. 지금 그것을 바로 잡자면 우선 진분(盡分)이라는 이름부터 없애야 하는데 그리 하자면 걸리는데가 많아 결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하였다.

겨울에 선희묘와 의소묘를 배알했다. 그해에는 경모궁의 오향제(五享祭)와 속절(俗節) 삭망(朔望) 때의 제사를 모두 친히 행했는데 어떤 때는 며칠씩 그냥 재전(齋殿)에 머물기도 하였으니, 그 해가 회갑(回甲)해였기 때문이었다.

수어 경청(守禦京廳)을 없애고 수어사(守禦使)는 남한산성을 진무하면서 광주유수(廣州留守)를 겸하게 하였다.

《이충무전서(李忠武全書)》를 편찬하였다. 왕은 충절을 높이고 공로를 보답하는 길이라면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유독 충무공 이순신(李舜臣)과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에 대해서는 그를 최고로 여겨 그들의 유문(遺文)과 유사(遺事)를 편집하고 충무공은 《전서(全書)》, 충민공은 《실기(實記)》라 하여 인행(印行)하였다.

사옹원이 오지 그릇을 정교하고 화사하게 굽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년 봄에 사단(社壇)에 기곡제(祈穀祭)를 올리고 내탕의 돈일만 께미를 내려 호남백(湖南伯)으로 하여금 금 곡식을 사 제주도 기민들을 구제하도록 명했다.

현릉원을 배알했다. 황단(皇壇)을 배알하고 대향(大享) 때의 희생과 기물을 살펴본 다음 하교하기를,

◆◆◆◆◆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의하면 정확(鼎鑊)을 살펴보는 일, 척개(滌漑)를 감시하는 일, 명수(明水)를 눈여겨보는 일, 이 모두를 친림(親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향 의식에는 다 섭행(攝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못 상국을 상국으로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 내 마땅히 친림하여 살펴보니 그렇게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여름에 회고 붉은 기운이 해를 꿰뚫는 이변이 있자, 하교하기를,

◆◆◆◆◆부덕한 사람이 20년이나 자리에 있었으니 무슨 재이인들 부르지 않을 까마는 희고 붉은 기운이 해를 꿰뚫는 이변은 금시 초유의 일이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책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 그 어찌 감히 예사로이 형식만 취할 것인가. 옛 선왕조에 관상가에서 희고 붉은 기운이 해를 꿰뚫었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 시사(試士)에 있어서는 그것이 직언을 들을 수 있고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정지하지 않았었고 대향에 있어서는 섭행을 하도록 했었다. 하늘을 받들고 선조를 받드는 일이 두 길이 있을 수 없고 재계를 할 때는 무엇보다 마음이 전일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여름 대향을 섭행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뜻으로 빈대(賓對)를 행했다.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를 문선왕(文宣王) 묘무에 종사(從祀)하였다. 그전부터 경외의 유생들이 누차에 걸쳐 배식(配食)을 청해왔었으나 정중을 기하기 위해 허락지 않고 있다가 그때 와서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가 선 이후로 앞장서서 성리(性理)를 천명하고 도의 근원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문정공 한 사람 뿐이다. 그의 시에◆◆◆◆◆하늘과 땅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있으니, 중니가 원기라면 자양은 진수이지.[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한 것을 보면 그의 학식이 다른 유자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알 만한 것으로 문정은 우리 나라의 주돈이다. 두 정씨와 장횡거·주자가 다 성묘(聖廟)에 배식되었는데 주자(周子)만 누락이 되었다면 두 정씨와 장횡거·주자의 마음이 편할 이치가 있겠는가. 가령 오현(五賢) 이하로 성묘에 종사된 그 유자들이 여기 있다면 틀림없이 문정공에게 앞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거행할 것을 명했으며 또 그 행법에 비해 시호가 만족하지 못한다 하여◆◆◆◆◆  
◆◆문정(文靖)◆◆◆◆◆을◆◆◆◆◆문정(文正)◆◆◆◆◆으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했다. 구리로 활자를 만든 것이 세종(世宗) 갑인년에 시작된 것인데 왕이 예각(藝閣)에 명하여 갑인자(甲寅字)를 기본으로 하여 글자를 주조하게 한 것이 전후 30만 자였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책을 인쇄하게 하고, 뒤에 또 정리사(整理字)를 주조하여 갑인년 겨울부터 창경궁 옛 홍문관(弘文館)에다가 인쇄소를 설치하고는 모든 어정(御定) 어명의 책들을 모두 거기에서 인쇄하고 편찬하게 하고서 이름하여 주자소라고 하였다.

《존주록(尊周錄)》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왕이 존주의 의리에 대해 자나깨나 선왕의 뜻을 이어 갈 생각으로 언제나 황단(皇壇)에 망배를 하고 관원을 보내 선무사(宣武祠)를 봉심하게 했으며, 영원사(寧遠祠)·무열사(武烈祠)에 제를 올리게 하고, 이 제독(李提督) 사당에 편액을 달고 해마다 제사를 모시게 했으며, 이 총병(李總兵)·석 상서(石尙書)의 후손들을 찾았다. 삼학사(三學士) 후예들을 발탁하여 등용하고 칠의사(七義士)들을 한꺼번에 제사지내고 용만(龍灣)에 있는 두 사당에 선액(宣額)하고 달천(侏川)에 있는 묘에다는 어필의 비를 세웠다. 김응하 장군의 큰 절의를 장려하고, 이유길(李有吉)의 유손(遺孫)을 찾았으며, 임인관(林寅觀) 등 95명에 대하여는 박작 물가에다 단을 쌓고 한관(漢冠)을 끝까지 간직한 녀들을 위로했다. 의(義)를 지키고 척화(斥和)했던



하고, 곧 강학청(講學廳)을 설치했다.

21년 봄에 각도에 윤음을 내려 늙은이를 쉬게 하고, 농부들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일을 공경하고,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이르기를,

◆◆◆◆◆ 《소학(小學)》이라는 책은 바로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는 차례(次第)요 절목(節目)으로서 나같이 과매(寡昧)한 사람으로도 선왕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동습(童習)의 나이에 날마다 배웠던 것이 다소의 힘이 되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거니와 요즘 와서는 배우는 방법도 변하고 가르치는 성의도 부족하여 그 책을 쌓아두기만 하고 보는 자가 없다. 내 그를 두려워하여 내각 신료를 명해 그 훈의(訓義)에 맞게 고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 같은 책도 그것이 치교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격려하는 도구 구실을 할 만한 책으로서 《소학》과 함께 없어서 안 될 책이니 그를 합해 한 책으로 만들고 이름을 《오륜행실(五倫行實)》이라고 하라.

그리고 또 하루만 실시해도 사방이 풍동(風動)할 수 있는 예로는 향음주례(鄉飲周禮)가 그것인데 옛날 우리 세종조 때 처음으로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시고 《삼강행실(三綱行實)》의 반하(頒下)도 역시 그 무렵에 하셨던 것이다. 나 소자도 어찌 감히 그를 본받아 그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향약(鄉約)도 그것이 백성을 순화시켜 좋은 풍속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주부자(朱夫子)가 매 월초면 향약을 읽는 일을 하였던 것이고 나도 그래서 향약의 효과가 향음주례 못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도 익히고 밝히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기무(機務) 여가에 향음주례에 관한 의식과 향약 조례 등을 분류 제정하도록 하라. 과연 그 제도가 법 뿐이요 말 뿐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융통성을 보일 것이며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현명해질 것이다.◆◆◆◆◆

하고, 내각에 명하여 《오륜행실(五倫行實)》과 《향례합편(鄉禮合編)》을 인쇄 배포하라고 했다.

원자 좌·우유선(左右諭善)을 두었다.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 나도 춘저(春邸)에 있을 때 빈료(賓僚)들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자는 현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단정하고 바른 선비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좌우에서 보익(輔翼)하는 이 중에 학식 행검이 훈도(薰陶)의 영향을 주기에 알맞는 자가 지금 세상이라고 왜 없으랴만 모름지기 생소한 야인으로서 세상 물정에 숙달되지 아니한 자라야 비로소 엄탄(嚴憚)의 효과가 있을 것이니 그 점을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호조가 조선(漕船)에 관한 사목(事目)을 올리자, 하교하기를,

◆◆◆◆◆ 선박으로 운반하는 일은 사실 군사 정책과도 관계가 있어 옛 주관(周官) 제도에서부터 한(漢)·당(唐)·송(宋)·명(明)에 이르기까지 물자 운반선이 바로 전선(戰船)이기도 했는데 그 역시 병농(兵農)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조창(漕倉) 제

도가 비록 군사 정책과 직접 상관은 없지마는 그 실체는 두 영(營)에서 대동미를 이리저리 옮겨 주는 것이나 혼련 도감의 삼수량(三手糧)이라는 것이나 곡식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양의 곡식을 대주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무슨 사정이 달라졌을 때는 그 달라진 사정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유독 조운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은 변통성 없이 옛날대로 고수할 것이 뭐 있겠는가. 전선으로도 이용한다는 뜻을 이미 말한 바도 있으니 선박 건조처의 영곤 읍진(邑鎭) 들을 엄히 단속하여 견고하고 정밀하게 건조해서 조곡(漕穀) 운반에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현릉원을 배알했다. 화성(華城)이 성가퀴·망루 등을 두루 둘러보고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효묘(孝廟)가 후원에다 적뇌당(滌惱堂)을 지어두고 내구마(內廐馬)를 타고서 중관(中官)에게 고삐를 잡히고 날마다 그 당에 가셨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힘든 일을 익히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말을 타고 힘든 것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법(家法)인 것이다. 나도 금원(禁苑)에서 군무 관계로 전좌(殿座)하게 되었을 때면 반드시 말을 타는데 그는 열성조 고사(故事)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온종일 말을 달려도 피로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4월에 원자(元子)가 사부(師傅)·유선(諭善)과 상견례를 행했다. 왕이 사부와 유선을 불러 접견하고 하교하기를,

◆◆◆◆◆오늘 이 예를 행하게 된 것은 하늘과 조종(祖宗)이 도와주신 것이다. 사부에게 나아가는 데도 절차가 있고 체모가 있기 마련인데 내 비록 배움(拜揖)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나 그 강독(講讀)하는 소리를 처음 듣고 마음으로 기쁨을 느꼈다. 경들이 잘 보도해주기 바란다.◆◆◆◆◆

◆◆◆◆◆

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자가 강독을 마치고 여가만 있으면 언제나 곁에 앉도록 명하고 화려한 복장 기름진 음식은 몸과 입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연 신료에게 말하기를,

◆◆◆◆◆나도 어려서부터 독서할 때 반드시 과정(課程)을 두었었는데 요즘은 원자를 위해 여가 때의 공부를 더하고 있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지금도 기억하지만 옛 선왕께서는 농사를 아주 중히 여겨 밭 갈고 김매 철이면 언제나 성남(城南) 들로 일찍 나가셔서 직접 살피곤 하셨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곳 부로(父老)들이 성적(聖蹟)을 못잊어하고 성덕(聖德)을 칭송하면서 그곳에다 대(臺)를 세우고 이름하여 성경(省耕)이라고 하고 있다. 나도 어가를 모시고 누차 수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하고, 각신을 명하여 대호(臺號)를 써서 돌에 새겨 세우게 하고, 또 동쪽과 서쪽 두 교외에다

각기 대 하나씩을 더 세우라고 했다.

왕은 삼황(三皇) 그리고 열성(列聖)들 휘신(諱辰)을 당하면 언제나 소선(素膳)을 들이게 하였는데, 빈연(賓筵)의 제신들에게 말하기를,

◆◆◆◆◆근고(近古) 이전에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회반(會飯)을 할 때면 쇠고기를 먹지 않았었고, 국기(國忌)를 당하여 재계 대면 조정 신료들도 모두 이틀간 소사(蔬食)을 했었다. 그것은 선왕조 초기까지도 그랬었고 오직 대향(大享)의 태뢰(太牢)와 진연(進宴)의 대선(大膳)에서만 비로소 쇠고기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까닭 없이는 소를 잡지 않았던 고인들의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은 간곳없고 각 궁방(宮房)들까지도 각기 딸린 푸줏간이 있다니 만약 법을 집행하는 유사(有司)들이 먼저 궁방부터 엄히 단속했다라면 그렇게 함부로 법을 어기고 금형을 범하는 폐단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가을에 장릉(章陵)을 배알하고 본군의 부로(父老)들 병고를 물었으며, 1년간 복호를 하고 갑인년 행차 때 그 행차 광경을 구경했던 나이 70, 80인 사람에게는 각기 1급씩 가자(加資)하였다. 그리고 이어 민회묘(愍懷墓)를 살피고 현릉원도 배알하였다.

【원전】 47집 294면

【분류】 \*왕실(王室) / \* 역사(歷史)